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도 지구촌은 여전히 분쟁과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힘든 형제와 이웃을 돌이키며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2월 17일 (토) 제 161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탄 칼럼

2016 주빈 없는 생일잔치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부모님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와서 학업을 마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취직을 한 후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외아들이 그는 고국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와 같이 살기위하여 초청을 하였다.

아버지 생일이 돌아오자 아들은 모처럼 모셔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푸짐한 생일잔치를 마련한 후 자기 친구 수십 쌍을 초청하고 밴드도 불렀다. 아들 내외는 한국 시골에서 오신 아버지, 어머니께 그런 자리가 어울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생일을 맞이한 주빈인 부모님을 위하여 다른 방에 음식을 차려놓고 노부부가 드시도록 하였다. 아들 내외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밴드에 맞추어 춤을 추며 흥겹게 놀았다. 생일의 주빈인 아버지는 이곳에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한 후 섭섭하고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오래 전에 어느 양가집 아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 받았다. 시간이 되어 결혼식장에 갔으나 아직 신부가 도착하지 않아서 신랑과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분,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신부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결국 그 잔치는 무산되고 말았다. 주인공이 없는 잔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어느덧 상가와 거리에는 성탄 축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 날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천군 천사의 우렁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하를 여기저기 본다. 첫 크리스마스의 축하는 주님 되신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제였다. 이렇게 할 때 첫 크리스마스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스마스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2016년 성탄절 축하는 오직 예수님이 주빈이 되시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여야겠다. 혹시 예수님을 빼놓은 사람들만의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첫 성탄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축하를 상세히 기록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탄 축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였다. 구유는 곧 예수께서 나신 곳으로 오늘날 예수님이 계신 몸 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성탄 축하는 성탄의 주빈이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축하하는 예배로 드러져야 한다. 그리고 빈손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축하하여야 한다. 성경학자들든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애급 피난 생활을 위한 소중한 생활비로 쓰였다고 말하고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동방 박사들의 축하와 경배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축하를 준비하여야 한다. 금년 성탄 축하에는 오직 성탄의 주빈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축하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 이러한 성탄의 본질을 알고 축하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성탄서



곽상희(서인)

2016 크리스마스의 기도

주여 금년에는
정직한 마음에 말구유를 퍼소서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마음에 오시어
복극의 열음보다 차가운 마음에도
무지와 이기심 미움이 불타는
무질서의 거리에도 오시어

희망과 사랑이 분노의 바람에 낙엽처럼
떨어져 슬프게 둥구는
우리의 가슴에도 오시어
우리의 소망과 믿음 사랑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어깨를 다독거리는 손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고 기다리는 양심에
인내의 말구유를 퍼소서

오해와 폭력 미움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십일세기의 거리 거리에는
이해와 사랑 희망의 말구유를 퍼시어
평화의 왕이시어 오시옵소서

주님 일 년 내내
우리의 가슴에는 평화와 기쁨이
참자유가 넘치는 말구유가 되소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성탄절 되어 한다!



3면
성탄 설교
민경엽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2면
살림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7): 2016년 한 해를 보내며



박서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미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최첨단 IT 관련 기업들이 집중해 있는 소위 실리콘 벨리의 마케팅 분석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소비 규모 때문이 아니라 유행과 트렌드를 앞서가는 소비자들의 탁월한 감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시장에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해서 그 반응을 살펴보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IT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가의 자동차나 패션 아이템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제품을 출시하고 고객들의 반응과 평가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를 넘어 정치마저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겨우 70여년 정도 밖에 안되는 그것도 분단된 작은 나라에서 영국과 독일에 이어 여성 대통령을 선출하더니 200여 만 명이 촛불을 들고 야당과 여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평화적으로 그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였습니다. 전세계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이 신기한 현상을 보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미국과의 동맹과 교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느라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동북아시아 정치와 경제, 군사외교상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한국의 경쟁업체들에게 가해질 제재나 법적 조치가 가져올 상황에 대비하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영적인 현상은 예외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일찍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서부터 미국과 전세계 기독교계에는 동양의 이스라엘로 알려졌었고, 최후의 교회와 신학교가 세워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말을 듣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후에 남한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 이미 드러난 기독교의 쇠퇴를 답습해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표방한 정치, 경제, 및 종교와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의 삶과 이미지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온 북가주의 한 대형교회 미국 목사의 근심어린 멘트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성장은 멈추었고 젊은 청소년들 세대는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열기는 찾기 힘들며, 이웃 교회의 기존 교인들을 유치하기위한 상상을 초월한 세속적 마케팅이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만의 자랑이었던 새벽기도마저 참석자들이 줄어 평일 새벽기도를 아예 폐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건축이 부담이 되어 건축을 중단하거나 교회 건물과 대지를 다시 파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이단 사대교주와 그 가족들에게 속아서 수십년을 농락당하며 국가와 국민들을 농단한 사실은 한국의 오늘날 영적인 주소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에 초청받아 대통령과 악수 한 번하고 그 사인을 교회에 붙여 놓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릴 때, 미혹의 영은 나라와 지도자들을 타락시키고 분열의 영은 백성들을 갈라놓아 서로 마치 원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고통 받는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민교회들도 고국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tdspark@gmail.com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성탄절 돼야 한다!

'2016 성탄절 맞아 그 유래와 의미 그리고 올바른 실천위한 제안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성자(聖子) 하나님께서 인성(人性)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구속사적(救贖史的)으로 임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정확히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지키는 기간이 다르다.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교적 절기에 교회는 태양이 신(神)이 아니며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고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태양이심을 증언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Christ-mas)의 기원이 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이교(異教) 나라였던 로마에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절기다. 이전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에는 더 이상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가 빠진/없는 성탄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생략된 그야말로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잔치로 세상이 시끄럽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없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은 크리스마스론 돈을 벌러 보러는 알뜰한 상술이다. 그러나 이 상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교회가 더 문제다.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탄절이 될까?

올곧은 성탄절이란 이 날에 우리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成肉身)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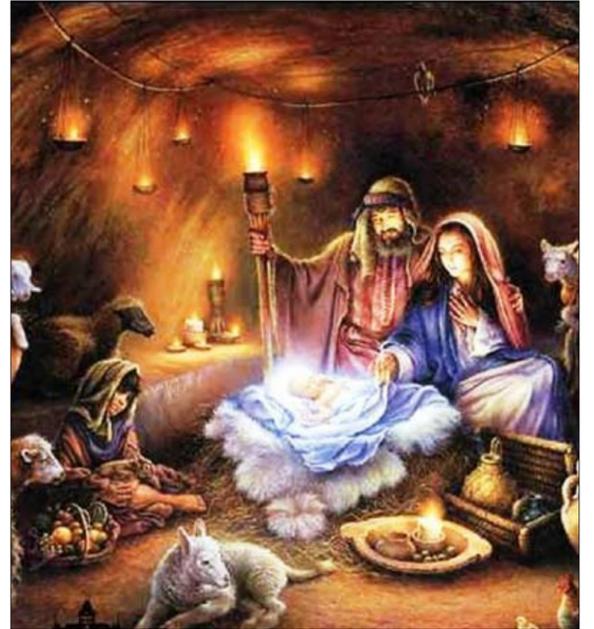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대리속죄(代理贖罪)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이며, 이와 같이 심각한 죄 문제 때문에 주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

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선포했다.

이와 같이 땅 위에 화평(和平)과 사람들에게 호의(好意)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피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서자!

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 없이 이 절기를 보내는데 익숙해졌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에서 시리아 반군 거점인 북부 도시 알레포는 가장 잔인한 성탄절을 맞는다. 유엔은 올해 성탄절 무렵이면 알레포 내 식량과 식수를 포함한 물자들이 모두 바닥나, 알레포에 고립된 민간인 27만여 명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휴전과 구호물자 보급을 요구해왔다. 알레포와 같은 곳에 비싼 성탄 트리나 점등 시설 설치 비용대신, 당장 먹거리와 따뜻한 담요를 전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부합될 수 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

사람들, 즉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구속사역이 이 땅에 화평을 주고 사람들이 호의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온전한 크리스마스의 회복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첫 성탄절의 아픔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이 없다. 교회는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들과 내년 사업 계획 등등으로 분주하고 복잡하다.

성탄절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계절이다. 영혼의 말구유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

탄절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날이다. 예수님이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교회가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알짜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성탄의 계절에 교회는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

크리스마스의 왜곡은 기독교 복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참된 크리스마스가 돼야 한다. 우리 영혼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실 수 있기를 바란다. 온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된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벌여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즉 피흘려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게 돼야 한다.

<편집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 665-0009(대 표) (323) 665-9025(광고국)
· Fax (323) 665-0056(편집국) (323) 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대표) (718) 886-4424(편집국)
· Fax (718) 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대형 문구 점들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예 크리스마스카드나 편지지 자체가 없었고, 다른 곳에는 카드가 있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었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된 카드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자체를 부인하려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지금 종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도 정신을 온 나라의 구성구석에서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분위기도 비슷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림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은 사람들은 종교나 학문과는 거리가 먼 미천한 목동들과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참 왕이신 메시아를 누구보다 영접했어야 할 유대 왕 헤롯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 듣고 죽여 없애려 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맞았어야 할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쳐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해야 할 서기관들은 이방인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살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냈을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에 젖어서, 또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되어서 정작 그들의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우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였던 것은 대부분 세속적인 영광과 풍부함과 안락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극소수에 해당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시므온이라는 사람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 8일 만

에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당시의 남자 아이들이 정결예식을 거행한 것처럼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인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대로 사는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구약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리سد를 보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온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찬양하였습니다.

시대를 타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타락의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 메시아를 낳은 백성이어서 만민에게, 그리고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민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3. 시므온의 예언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34절). 패함과 흥함이라는 표

보내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확실히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작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십니다(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고 비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요1:11).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비

마리아의 가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뜻이며,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요19:25).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야 십자가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겸손하게 맞아들여야 합니다.

4. 시므온을 통해 배울 교훈들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삽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 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는 지옥이 되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또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고전1:18). 원래부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자꾸만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산다는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렇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돌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셋째로, 그는 깊은 고통을 안겨 주십니다(35절). 시므온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아들이 되실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골리앗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커다란 칼이고 야만인들이 휘두르는 칼입니다. 또한 여기 마음을 찌른다는 말은 칼로 계속해서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현은 원래 넘어짐과 일어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하게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게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일어하게도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판도가 달라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요3:16-18).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에

루어지는 것입니다.

2. 시므온의 찬양

시므온은 그 어린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볼 것이라고 하신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28-32절).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암흑 가운데 헤매던 인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구세주로 인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예비된 것이며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사40:1,2). 시므온은 이 위로의 말씀이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남기고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불드시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한 자로, 주위의 불신앙과 패역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베데스다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편)입생 수시 모집안내

2017 겨울 학기 인테시브 • 개강 1월 23~2월 4일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며(FAFSA)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베데스다 신학과 온라인 수업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 중 수업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40위까지 발표된 명단에 한인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올라갔습니다. <http://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

1976년, 베데스다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헌신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지원자는 반드시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Master of Divinity(M.Div) 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M.Div. program 과정 중 평점(GPA)3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중 6 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자는 M.Div 과정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규 4년제 대학교 I- 20 발급 TRACS, ABBHE, BPPE 인증대학, NCCAA 멤버

입학안내 문의 : 직통 213.327.8095 권 박 목사 / 목회학 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입학처 TEL : 714-517-1945 모니카 김 / E-mail monicakim@buc.edu

www.buc.edu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BETHESDA UNIVERSITY

Bethesda University Anaheim Main Campus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TEL : 714-517-1945 FAX : 714-683-1440 EMAIL : monicakim@buc.edu





목회서신

삶의 끝에 섰을 때!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 구역에서 준비한 풍성한 만찬을 즐긴 후 온 성도들이 추수감사 특별음악회에 참여해서 에벤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전에 타코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통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91세를 향수하신 타코마중앙장로교회 함양호 장로님께서 천국으로 가셨기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이틀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12년 만에 떠났던 타

코마중앙장로교회에 다시 서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위로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로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함 장로님은 제가 타코마에 부임해서 첫 번 작정새벽기도회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너

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교회에서 한인으로 위싱턴 주의 최고의 부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함 장로님이 입을 넓게 벌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제가 타코마중앙장로교회를 떠날 때, 그분은 사업이 번창하여 워싱턴 주에서 한인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 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타코마를 떠날 때 3일을 식음을 전폐하시고 드러누울 정도로 가슴 아파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에 세 마디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에 호스를 끼워 말을 할 수 없어서 글로 "화목, 엄마, 끝"이라고 쓰셨다는 글을 제가 보여 주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노환이신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제 다 이루었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유언이 사면에 관

한 얘기나 명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라, 엄마를 부탁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믿음과 사랑에 관한 유언, 하늘소망에 관한 유언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삶의 끝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날 거룩과 사랑과 충성에 부끄럼이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비전 공유... 개인적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리더십저널, 뉴욕 리더교회 팀 켈러 목사의 성장 노하우 전격 공개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더교회를 향한 관심은 지대하다. '도시에서는 복음화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에 역행하는 이곳을 향한 관심은 세계 각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탐방하고 참관하고 리더교회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와 만나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듣고 싶어 한다.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수많은 시간과 기도와 눈물로 비전을 공유했던 것이다.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있지 않고, 도시라는 밭에 심겨지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그런 수고를 통해, 이 시대 복음의 영광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서 켈러 목사는 교인들 각자만의 개인영성에서 반드시 벗어나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가운데 복음이 온전하게 개화될 수 있다고 권면한다.

요즘 교회에서 개인 경건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내적 경건과 영적 훈련, 소그룹 교제, 개인 관계 전도는 보통 개인적 영적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런데 오늘 고민해볼 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개인 경건의 강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 경건의 강조가 자칫 개인주의적 세태 속에서 공동체의 경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 영성에 열심인 성도가 때론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훈련의 참여는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된 세태의 왜곡된 표현일 수 있다.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이 정도다' 하는 훈장이 되기도



'세상과 구별'은 세상에 역행하는 '반문화'... 공동체 신앙 통해 경험돼야 예배는 공동체적 비전 제시, 공유, 개인적 말씀의 작용 확인하는 장 돼야 개인경건 뿐 아니라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의 3중 울타리 작동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조차도 나 개인의 헌신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돼 개인 평판이나 성취감을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신앙이 약화되고, 개인 경건만 좇는 세태는 갈수록 심화돼간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모두 있다. 외부적 요인은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주의적 세태,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던 사회의 시대정신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내부적 요인은 좋은 신앙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이유 때문이다. 많은 수련회와 부흥회에서 우리는 '교회에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 대해 경계하며,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지 회개하도록

추구한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자칫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교회가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나의 회심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성찰로만 오해하게 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경건이 과도하게 되면 진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10면으로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미연론, 출간 50년 만에 마틴 스콜세지 통해 12월 23일 개봉되는 영화 '침묵' 소개

앤드류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 드디어 영상을 통해 재현된다. '택시 드라이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 허리우드 영화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거의 25년 동안 매달려 만든 영화 '침묵'이 성탄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개봉된다. US투데이는 "영화 '침묵'은 17세기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벌인 두 명의 예수회 수사에 관한 영화로 이들이 당면한 심각한 위험과 박해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Martin Scorsese's 'Silence' trailer is here). 또 LA타임스는 "카톨릭 신자인 스콜세지 감독이 2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으로 오스카에 도전한다"고 보도(25 years in the making, Martin Scorsese's 'Silence' will get its Oscar moment)하면서 흥행 면에서도 대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화는 기독교가 금지됐던 17세기 일본에서 두 수사가 실종된 스승을 찾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신앙에 대한 시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페레이라 신부(리암 니슨)가 배교(신앙을 버림)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에 알려진다.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와 가르페 등이 그의 실패를 만회하고 선교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된다. 그들은 가톨릭을 박해하는 어떤 행위도 깊은 신앙으로 견뎌내고 순교자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도 마찬가지였을 터. 그러나 스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소박한 일본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자생적으로 신앙이 이어지고 있었다. 실패한 줄 알았던 페레이라는 사실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있었다. 로드리고와 가르페는 이들의 종교를 이끌면서 선교활동의 희망을 본다. 그러나 이 신도들은 일본 영주의 박해를

피해 살아남은 신도들이었을 뿐이다. 전에도 배교했다가 다시 신도가 된 기치지로(구보즈카 요스케)라는 청년 때문에 영주는 새로운 서양 신부들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잡아들여 배교를 강요한다. 가톨릭 박해는 잔인하고, 야비했다. 그는 로드리고(앤드류 가필드)에게 성화를 밟고 배교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가 거부할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신도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몸을 묶은 채 바다에 빠트리 의사시키고, 목을 베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는 등 차가 떨리도록 잔인하다. 자기의 선택이 늦어져 신도의 가여운 희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로드리고는 갈등한다. 자신이 신을 저버리지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감히 신을 저버릴 순 없다. 자살 또한 교리에 어긋난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로드리고는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 수사는 화형과 익사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포함해 개종한 일본인 크리스천을 구하기 위해, 크리스천임을 부정하고 예수상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다. (1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cludes the text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and 'GRACE THEOLOGICAL SEMINARY'. Lists various courses such as 'On Campus Courses', 'Online Courses', and 'Off-Campus Courses' with dates and descriptions. Also mentions '모집 과정' (Recruitment Process) and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ATS-approved Korean language Master's degree in Cultural Exchange Studies).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사물 자체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자신을 위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사용자에게 시간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를 만드신 자가 원하시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실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그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직분과 직임이 올라갈수록 더욱 많은 폐해를 가져옴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한국의 일들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존재목적 1. 성공

그러나 그 자유를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하는 헤겔의 의식 속에 있는 자유, 과연 그는 진정 자유를 알았는가? 에 의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아니, 자유를 아는가? 자유를 정말 원하는가? 또 사람들은 자유만큼 사랑을 인생의 존재이유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도 자유만큼이나 복잡다변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에 다루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갈구했지만, 요즘 같은 물질문명 시대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자유로운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본다. '더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존재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언제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종이 되고 매이는 자가 되고 말

장하는 이들을 보라. 얼마나 명예, 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 청문회에 나와서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는 것을 본다. 대통령이라 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임에도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인간의 본질이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가진 권력이 강대할수록 더욱 많은 폐해를 가져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절대 기준에 매인 복된 인생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상대적이다.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할 하여도 바로 옆집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

집을 반복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를 크게 여기지 않으신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일어나 다시 쓰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최로 인한 상실로 실패한 인생을 위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 위로하고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죄로 인해 실패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로 찾아오신 분이 회복케 하는 자 예수님이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2016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인생은 후회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짐을 본다. 주님의 제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보통은 연말시즌이 되면 후회하는 마음의 고통을 많이 호소한다. 목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만물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뜻 -상실과 회복-

세상 사람들이 줄기차게 원하고 요구하는 그들의 존재 목적은 성공이다. 여러 갈래의 정의가 있겠지만, Vadpersher는 "성공이란 그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모아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 직업을 구하려는 실직자,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사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 혹은 유명한 스포츠맨이 되겠다는 사람 등등,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소원을 가운데,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품에 안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공의 기준에서의 정의일 따름이다. 돈을 바라던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성공이다. 세상의 높은 권세를 꿈꾸던 사람이 이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성공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기준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 자신이 바라던 대로 무엇이 이루어낸 것을 뜻한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권세나 능력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취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운명, 현실안주주의, 형식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신앙, 불순종, 자기 아집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는 미련한 자-바보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니, 일단 성공하고 보자는 세상의 요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존재목적 2. 자유와 사랑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인다면 좀 더 고상한 생각을 찾아보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자유와 사랑에서 찾는 이들도 많이 있다. 실제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많은 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자유로 해석한다. 헤겔도 역사의 발전 그 정점에 자유를 둔다.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적인 성공에 비해 상당히 본질에 접근한 듯 보여지는 자유와 사랑마저도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본다.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병들고 참된 진리와 자유와 사랑을 알만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권세를 꿈꾸던 사람이 이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성공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기준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 자신이 바라던 대로 무엇이 이루어낸 것을 뜻한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권세나 능력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취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존재목적의 상실

인간은 성공자체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일정부분 자유와 사랑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결국 제한된 만족을 줄 따름임을 알아 둔 것이다. 왜 그런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물 자체에 존재의 목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용자가 상실과 매인 속에 살고 있기에 현상적인 조건들을 변모시켜본들 여전히 자유와 사랑에서 거리가 먼, 참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심각한 말이지만, 결국 사람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상실의 본질을 인지하고 회복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회복 없는 성공은 또 다른 재앙

영혼자체의 회복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온다. 관리능력이 되지 않는 데, 좋은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실로부터의 회복이 부재한 성공은 마치 소금물을 욕심내어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몸의 병이 낫고, 사업이 대박을 내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모두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며 비교우위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한잔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일이 없어도 그때 그 기쁨을 지키려고 계속 한잔씩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기뻐서 먹는 술이 아니라, 먹음으로 기쁘게 되는 종속, 매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중독에 드는 것이다.

최근의 한국의 정치 청문회에 등

있는데, 이제는 돈만 많아지고, 나머지 형제간의 우애나 부모자녀간의 공경과 효는 사라졌음을 본다. 돈이 없었을 때는 가족이 뿔뿔 뿔 떨어져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서로를 생각하였는데, 요즘에는 돈 있는 부부는 방이 많으니 각자 따로 살고 고급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본다. 자녀들도 각자 핸드폰 들고 방에 들어가서 불행한 대화의 단절을 보게 된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돈을 복음으로 알았던 것이다.

교회생활도 과거의 교회생활 할 때와는 달라졌음을 본다. 예전에는 주일날도 저녁예배 드리고 마치면 성경대 연습하고 고3이어서 다음날 학교 상관없이 봉사했는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며 살고 있지만, 결코 수치상의 액수의 증가가 진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보장할 수 없음을 보게 한다.

사람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 -상실과 회복

성경의 첫 부분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회복의 길을 말한다. 아니, 회복의 길로 오라고 외치고 있다. 외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회복자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거의 강압(?)적으로 초청하신다. 그만큼 성경은 회복의 책이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끝은 회복된 자들의 삶을 보여 준다. 영원한 삶의 약속이다. 천국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회복자이신 주님을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회복은 상실을 전제로 하기에, 회복을 소망하며 상실의 과정을 넘어설 때, 그 인생에게 비로소 참된 성공과 자유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든 무엇을 하든지, 의미있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회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생을 불러 쓰실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사람을 찾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죄에 미친 그 쓴뿌리도 인해 항상 실패한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패와 넘어

표를 이루지 못해 후회하고 이루어 놓고도 의미를 찾지 못해 후회하는 것을 본다. 여전히 상실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물의 회복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내면의 영적질서가 상실을 넘어서 회복을 맞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모든 것에 감사함을 본다.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영혼의 울림이 상실의 상처를 몰아내고 감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재 실패에도 당당하다. 회복을 맞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기에 그는 선하신 주의 뜻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회복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복이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 앞에 가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한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남편이 고치지 못할 암으로 고생하며 키모데라피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지식으로서는 죽음은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죄책이 다 제거되었는데 왜 죽음의 과정이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지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많은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요?

-그라나다힐에서 유 권사

A: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인생의 동반자인 부인께서 마음의 심적 고통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잘 치료하여 고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이 질병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죄에 의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지적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진노의 표현이요 죄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죄책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신자들도 죽느냐?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분명 신자들에

성도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천국으로 옮기는 과정

게도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죄의 정죄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고통스런 체험을 통과하게 하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 백성을 성화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인생 훈련의 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딤후4:7-8).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크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묘비에 She ascended to the Heaven이라고 썼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형벌이 남아있다는 관념은 연옥 불의 카톨릭 사상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한국의 조직신학자였던 박형용 박사는 그의 책 종말론에서 성도의 죽음을 훈련의 정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6: 15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콕은 "죽는다는 생각,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효과를 끼친다.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고 육육을 억제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정신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육신의 암 투병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여차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생명의 기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 완성하여 천성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사망 저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초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고후5:1, 8).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임종을 앞두고 7시간을 기도하면서 로마서 8:18절을 암송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도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신청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글 : _____ 목 사 □ 영어 : _____ 평신도 □ |
| 배달주소 | _____ |
| 전화/Fax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받는분 이름 | 한글 _____ 영어 _____ |
| 전화번호/Fax | () () |
| 배달주소 | _____ |
| 교회/기관명 | _____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하니(HANI)



1백30만 명 이상의 하니족들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중국 남쪽 윈난(Yunnan) 성 지방에 거주한다.

때문에 하니족이 티벳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족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들과 풍부한 강우와 비옥한 대지에 거주한다. 하니족 농부들은 가파른 산기슭을 따라 계단식 밭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하니족은 수세기 동안 고산지역에 격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들의 모국어인 하니어에는 10개의 방언이 함께 통용되긴 했지만 1949년까지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

삶의 모습

하니족에게 가족은 가장 유의미한 집단이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일처가 법으로 되어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다처가 행해지기도 한다.

하니족은 거짓 없고 신실하며 친절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손님이 방문하면 하니족은 와인과 진한 차를 대접하는데, 이때 만약 손님이 그 대접한 것을 거절한다면 이는 주인에 대한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니족은 매년 여러 개의 대형 축제를 벌이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해 축제이다. 이 일주일 동안의 행사는 10번째 달인 추수기동안에 행해진다.

그들의 신앙 전통적으로 하니족들의 신앙은 토속신앙과 다신교, 조상숭배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었다. "거룩한 산들(holy hills)"에 있는 나무들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믿었다.

축제가간 동안 하니족은 푸른색이나 검은 빛깔의 옷감과 염색 천

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끄는 수제 품 전통의상을 입는다. 남자는 특이한 자켓과 터번을 입는 반면, 여자는 민소매 블라우스에 특이한 모자를 쓴다.

그들의 신앙 전통적으로 하니족들의 신앙은 토속신앙과 다신교, 조상숭배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었다. "거룩한 산들(holy hills)"에 있는 나무들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믿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쌍둥이나 장애아의 출생과 같은 특정한 사건들을 불행해지는 것으로 여긴다.

하는 많은 신들을 믿는다. 하니족은 3명의 주요 종교적 성직자를 주시한다. '주이마(zuima)'는 모든 종교적 활동들을 총괄하는 최고 연장자 격의 가정에 속한 남자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기독교를 금지한 이후, 현재 하니족 가운데 단 하나의 선교단체가 일하고 있다. 성경과 영화 '예수'는 아직 하니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기독교 방송이 아직 그들 지역에 없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기독교를 금지한 이후, 현재 하니족 가운데 단 하나의 선교단체가 일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콥트교회 폭탄 공격은 22세 자폭범 소행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콥트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은 22세 자살 폭탄범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일간 알야람 등 현지 언론이 12일 이집트 대통령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테러 희생자 24명에 대한 장례식이 끝난 뒤 "콥트교회 폭탄 공격은 마흐무드 사피크 모스타파(22)가 감행한 것으로 현장에서 그의 시신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어 "그 젊은 남성은 교회로 진입한 뒤 혼자서 자폭 폭탄을 터뜨렸다"며 "그는 가방이나 다른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 당국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성 1명을 포함한 사건 연루 용의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장례식이 끝난 후 콥트교도들이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집트 일간 알야람이 알음에 따르면 폭탄 공격이 발생한 교회 바깥에서는 성난 콥트교 청년들과 경찰이 목숨걸이 싸움을 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앞서 11일 오전 10시경 카이로 압바시아 구역에 있는 콥트교의 성 베드로교회 예배당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자폭범을 포함해 25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콥트교는 전체 인구 9천만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 수니파인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이다.

직장에서 성탄 분위기 내도 좋다

성탄절을 앞두고 영국의 각 직장에서 자유롭게 예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채티티튜데이는 영국 평등과 인권위원회(EHRC) 데이비드 아이작 의장이 최근 '직장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터에서) 성탄카드를 보내고 파티를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2010년 직장 교육현장, 공공 서비스 분야 등 광범위한 공적 영역에서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법안이 발효돼 그 영향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고용주에 따라서는 종업원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만 해도 제재를 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아이작 의장은 "올 성탄절은 직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즐거운 성탄 되세요(Season's greetings)'나 '겨울 축제(Winter)' 등의 말은 가능할 것"이라며 "직장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강력한 전통을 가졌다"며 "우리의 기독교 전통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터에서 신앙에 대해 말하고 크리스마스에 관해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길 모두가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언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세계의 눈도 대한민국 국회를 향했다. 미국 CNN방송과 일본

NHK방송 등 각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탄핵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은 특히 향후 한국 정세가 불안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국회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훌쩍 넘는 23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첫 여성 대통령의 충격적인 추락(stunning fall)"이라는 표현을, AFP통신은 "국가와 결혼했다"며 청와대 들어간 정치인의 명예가 꺾였다고 비난했다.

CNN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서조차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이 많았다"며 탄핵안 가결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수천명의 성난 시위대가 국회 밖에서 표결을 기다렸고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했다"고 분위기를 묘사했다.

탄핵안 가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이어 탄핵안까지 통과돼 한국 미래가 한층 더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탄핵안 가결은 최순실에게 무능하게 조종당했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며 "아당은 현 상황을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새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나라당 주도의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회가 국민이 함께 탄핵에 나선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퇴사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향후 탄핵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을 차례로 꼽았다.

영국교회도 '이단 신천지' 경계령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온라인판은 "이만희가 신의 대인자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해외에 나가서도 나라명신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온라인판은 10일 "영국 국교회 가 런던 500개 교구에 '파라크리스토'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보냈다"면서 "파라크리스토는 자신단체 이름으로 등록했으며 성경공부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 단체는 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교회로 알려진 신천지와 관련돼 있으며, 신천지의 설립자 이만희는 '신의 대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천지에 연관된 사람들은 점차 친구와 가족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몇몇은 그들의 직장도 대학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과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면서 "이 단체가 런던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를 방문해 그들의 모임과 특별한 성경공부도 초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파라크리스토는 지난 여름 자신단체로 정식 등록을 했으며, 영국 전역에서 인유어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신고했다. 신문은 "파라크리스토는 런던 동쪽 캐너리 워프에 위치해 있지만 전화와 홈페이지 모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영국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통제와 거짓말을 하는"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브롬프턴 홀리트리니티교회의

니키 검블 목사는 교회로 보낸 공문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교회와 다른교회의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속임수를 쓰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집단은 영국과 전 세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집단"이라고 경고했다.

존 퍼터 세인트메리런던교회 목사와 교회 홈페이지에 "파라크리스토라는 사이비종교를 조심하라"는 글을 올려냈다. 그는 "이들이 친밀감을 갖고 접근하며 이후 캐너리 워프에서 성경공부를 하자고 초청할 것"이라면 "성경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임수와 통제를 하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가 제기되자 파라크리스토는 변호사를 통해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파라크리스토에서도 가르친다"고 시인했다. 이어 "파라크리스토는 신천지의 드러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세워졌다"면서 "클라이언트(의뢰인)들의 성경공부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아니냐"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지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파라크리스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개인적 선택에 의해 성경공부를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국 파라크리스토가 신천지와의 관계성을 실토했음에도 한국의 신천지는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다. 신천지 고위관계자는 "파라크리스토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면서 "국내 포교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해외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신원호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신천지에 빠진 한국의 피해자들 가운데 이혼 가족 학업포기 사직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신천지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까지 나라명신을 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구원파 등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포교활동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타임 올해의 인물...'분열된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됐다.



타임은 6일 "어제의 정치 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내일의 정치 문화에 대한 프레임에 제공했다"며 90번째 올해의 인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음을 알리는 타임의 최신호 표지에는 트럼프가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의 대통령이라는 설명도 들어갔다. 타임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인들에게 절망에 대한 선동의 언어를 들려줬고, 진실이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만큼의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일깨웠으며, 분노를 정치의 주류로 끌어들이고 공포심을 생중계함으로써 숨겨진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었다"고 풀이했다.

타임은 "평론가들이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단지 저속하고 야만적이며, 본질은 거의 갖추지 않은 '쇼맨'으로 치부했다"면서 "그러나 그런 경멸이아말로 트럼프의 동력이 됐다"는 점을 비평가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트럼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멸을 보통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영국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현상의 반영이고, 어떤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닌 그보다 훨씬 강한 일종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도 보였다.

아울러 타임은 "트럼프가 무엇이 미국의 가치인지에 대해 너무도 많은 과제와 너무도 많은 선택의 기로를 제공했다"면서 과연 미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그의 다음 과제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가 자동화의 시대에 노동자들을 위한 뉴딜정책을 만들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며 공장을 다시 만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부정했던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NBC뉴스의 '투데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타임으로부터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영광이고 큰 의미를 갖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로 트럼프에게 패배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해커들'을 올렸다.

공격당하는 크리스천방송 진행자 부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크리스천 부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기독교 커뮤니티 '갓톡'은 지난 1일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단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보주의와 동성애 운동가들로부터 프로그램 하차 위협을 받고 있는 케이블 채널HGTV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는 'Fixer-upper' 프로그램의 주인공 짐과 조앤 게인스 부부 돕기에 나섰다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 지역의 낡은 집을 수리해서 집의 가치도 높이고 고객이 꿈꿔왔던 드림 하우스를 지어주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부부와 가정의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들 부부를 하차시키려는 이유는 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담임목사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한 것까지 함께 포함해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당장 접어야 한다고 방송국에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방송국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차원에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겠다"면서 항의를 묵살하고 있다.

AFA는 이들 부부가 방송에서 설교를 했다거나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내보낸 적이 없음에도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 성향을 드러내며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려는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 운동가들의 비상식적인 항의에 이 부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요청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골란고원에 등장한 구름기둥... '이스라엘 보호, 하나님의 기적!'

페이스북에서 7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공유된 놀라운 영상이 있다.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지난 6일 한 기독교 블로거는 이스라엘 뉴스 온라인이 보도한 영상을 소개했다.

이스라엘 뉴스 온라인은 목요일에 게시된 영상은 거대한 구름과 먼지와 비가 섞인 기둥이 등장하는데 이 기둥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위험한 국경 지역을 순회하듯 지나고 있다. 이 영상이 촬영되기 나흘 전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ISIS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한 바 있었다.

믿기 어려운 점은 이 신비한 구름 기둥이 정확히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시리아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국경 앞에서 사라져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상한 먼지와 구름과 비의 폭풍(구름기둥)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마치 ISIS와 이스라엘 사이의 장벽처럼 놓여있었습니다"라고 이 영상을 게재한 페이스북에 설명하고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흥해를 갈랐을 때도 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4)

조진모 목사 (펠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 (5) -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창조 이후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마지막 날 이후 모든 인류는 두 갈래의 길 중 한 쪽에 설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이로 인한 책임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 두 인물, 두 길

어거스틴(354-430)은 사도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린 초대교회의 신학을 총 정리한 인물이다. 그의 신학 사상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시대는 물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절대적이다. 그의 막대한 업적들 가운데 후대교회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상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원죄와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림으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학 전통을 세운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현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신학적 전통과 교파의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제법 크다.

어거스틴은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어둠의 세계에 빠져 쾌락을 탐닉하기를 즐겨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자신의 자서전인 "참회록"을 써내려가면서

놓치지 않으려는 주제였다. 그를 대단한 신앙인이자 교회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내용을 주저하지 않고 써 내려갔다. 외부로 드러난 자신의 악한 행동은 물론, 그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천박한 생각들까지도 공개하였다. 독자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체험한 장본인이라는 확신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가 지녔던 성경지식과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당대에 비금갈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나,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그의 신학의 바탕이 된 것이다.

어거스틴과 한 해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인물을 소개한다. 은혜에 관한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그의 이름은 펠라기우스(Pelagius, 354-420)이다. 영국에서 태어난 후 로마에 와서 활동하면서 제법 많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았던 수도사이다.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욕생활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삶의 모습과 신학에서 쉽게 탐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택한 경건한 삶에 도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였다는 것이다.

동 시대에 살았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결국 심한 갈등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서 교회는 두 사람이 각각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는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선택'이라는 길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에 손을 들어주었다. 추후 에베소회의(431년)와 오펜지대회(529년)에서 어거스틴의 은혜 중

심 사상을 정통 신학으로 확인한 동시에,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대결구도는 후대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세교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신학논쟁의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결국 교회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누스가 제시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

■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담의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원죄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아담은 분명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죄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문제는 아담의 죄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마치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러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모두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후에 죄를 짓게 되

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설명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물론 결정은 순수하게 인간 개인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독특하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 은혜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받는 모든 도움을 가리킨다.

■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426년부터 427년 사이에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작성하였다. 매우 논리적이고 풍부한 성경적 뒷받침을 담고 있으므로,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본서는 전체 46장으로 구성되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주장하였다. 아담이 지은 죄는 개인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죄로 인한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도저히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아무리 맑고 순진해 보여도 죄의 오염이 된 상태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된다는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정반대로, 어거스틴은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

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그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행동이란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단지 자유의지에 관계하여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결코 선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자신

수 있는나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낳게 하였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죄와 선을 선택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죄인은 선행으로 구원을 선택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죄인의 의지와 모든 행위가 거짓될 뿐이다. 타락한 인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창조 전에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는 죄인을 향해 무조건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죄인이 변화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2) 성경이 보인다 - 로마서 3장 23-25, 11:6; 갈라디아서, 3:13-14; 에베소서 2:4-8; 고린도전서 15:10, 디도서 3:4-7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드리도록 삶의 정황을 주관하신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곧 천국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나그네의 신분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하신다.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안에 거하여 살면서 평생토록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도로 빼앗지 않으셨다. 어거스틴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려한 것이다.

어거스틴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선행적 은총' 개념을 소개하였다. 혹시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선행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것이다. 죄인이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곧 선행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 상반된 구원의 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간 길에 후대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교회의 역사는 선명된 두 개의 길로 나뉘어졌다. 인간의 원죄,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두 사상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특별기고

고 이원상 목사님을 그리며...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KAFHI이사장)



예수의 인격을 닮은 기도의 사람

위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원로목사요, Seed선교회 설립자요, KAFHI 명예 이사장이신 이원상 목사님께서 지난 12월 5일 오전 5시 27분 향년 79세로 소천하셨다. 지난 2년여 가까이 투병해 오시면서 드 인제나 잔잔한 미소와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교계의 지도자로 이민 사회의 어른이셨던 분이시다.

26년 동안 위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면서 미주 이민교계의 대표적인 모범 교회로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계에도 부각된 대형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시다. 남다른 선교의 열정으로 설립하신 Seed선교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국내외로 사역을 확장시켜 오신 분이시다.

위싱턴 이민사회와 교계뿐 아니라, 전 미주 한인사회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끼쳐 오신 분이시다.

이 목사님의 인품은 '운유와 겸손'으로 이 목사님의 사역은 '기도'로 함축할 수 있다. 목자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닮아 가신 삶으로 여겨진다. 사역의 규모와 열매 이전에 그분의 온화한 모습과 겸손하신 자세는 은은하게

향기나는 꽃과 같다. 이 목사님의 일생은 자신의 욕망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포기과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다.

피난생활, 장로이신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의사가 아닌 목사의 사명을 품고, 준비과정으로 철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이유다.

미국 유학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며(Dallas 신학교 Th.M),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신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논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부름 받은 위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성적인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고 여기며 준비해왔던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이민 목회자로서 평생을 헌신하여왔다(72세에 영국 웨일즈대학에서 크리스토퍼를 연구하여 철학박사 Ph.D학위를 받으심으로 젊었을 때에 포기했던 꿈을 뒤늦게나마 이루셨다).

초기 목회상황에서 장에 부딪힌 그에게 달라스에 있는 지인들이 개척교회를 준비하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마치려

고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섬기던 위싱턴 중앙장로교회 교우들의 간곡한 만류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목회지를 일구어 오늘의 대교회로 성장시키셨다.

인생의 위기와 기회의 양극단에서 그분은, 기도함으로써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환경적인 요인과 부름의 사인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의사의 욕망을 포기하고 목사로,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이민 목사로, 개척의 계획을 포기하고 담임목사로 26년을 위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고 교회 내규에 따라 65세에 은퇴하신 후 자신이 설립한 Seed선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먼 여행이나 휴가도 마다하시고 한국에 출타하실 때에는 주일을 본 교회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일정을 조절하시면서, 말거진 양떼와 목장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명을 다해 오셨다. 오늘날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희생적인 헌신으로 성실한 목회의 길을 걸어 오셨다.

필자는 24년전 위싱턴 인근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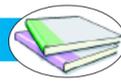
치몬도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의 사랑과 지도를 받아온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20여년 전 위싱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함께 시작하고, 15년전에는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KAFHI)를 창립하시면서, 당신의 대를 이어 늘 이사장직을 맡겨주시며 격려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오래전 어느 선교기관 행사에서 당신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필자는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늘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은퇴하신 후에 후임목사 선정과 필자의 교육관건축 기도는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얼마 전 기아대책 이사회 후 만남에서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원하셔서 투병 중에서도 매우 밝고 환한 모습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나여름 한 장로님의 장례식 하관예배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던 기쁨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기도의 교제로서 후원해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셨다.

기도의 사람, 이원상 목사님,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운유와 겸손'의 그 부드러운 손을 한번 더 잡아보고 싶다. 우리 모두, 잔잔한 미소로 온화한 웃음을 띤 그 모습과 그리워할 것이다. 하늘의 면류관과 빛나는 상급을 받으시며, 지금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중앙장로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기실 줄 믿는다.

새책소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 I

저자 채동선 전도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의 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 I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출간됐다.

채동선 전도사는 서문에서 "가난은 부요의 반대라 아니라 단지 그것의 부재일 뿐이다. 마치 어두움이 빛의 반대라 아니라 빛의 부재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부재, 결핍, 가난이라는



인생의 어둠과 결핍의 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다...

이 실존적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역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분을 발견하게 되는 도구이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결핍의 지점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고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축복된 장소"라 말하며 "자신의 불능적 실존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만나는 작업이 참된 묵상의 본질이며 어두움의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묵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적인 삶', '존재가 변화해', '나의기도', '참된 경건' 등 100장의 묵상 시로 엮어진 본 도서는 각 기독교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리더십 코멘터리 (3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Endure 2016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우스트를 집필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가 23세부터 82세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한다. 명작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긴 세월 동안 법학자, 정치가,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들의 다양한 종류의 일을 했다. 그러나 괴테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내(endurance) 때문이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연구하고 쓰고 또 되고하기를 거듭하여 인내로 마침내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킨 것이다.

화가로 출세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으면서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미켈란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명성이 떨어질 거야. 저 친구를 매장시켜버려야 해.” 그 친구는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하여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도록 했다. 천정화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실패하여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그런 일을 주선한 것이었다.

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도중하차하거나 나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채워 주시되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한 것은 인내라는 이 두 글자뿐이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된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당신이 조금 더 인내함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201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한다.

리더의 연말 슬럼프 극복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데일 카네기가 성공한 사업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빛바랜 낡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물이 빠져나간 깃발에 절망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그런 일을 주선한 것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리더여, 슬럼프를 극복하라.

연말 슬럼프 극복을 위한 코멘트

Leadership Commentary 1: 속도를 늦추고 소음을 줄여라.

슬럼프가 닥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슬럼프가 회복될 때까지 꼭 해야 할 일과 시급한 일을 제외한 사소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시급하지 않은 일들을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해 온 사람들에게 고요함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Leadership Commentary 2: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하라.

슬럼프가 오면 역전의 기회로 삼아라.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업무에 매달려 왔던 자신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라. 취미활동을 통해서 내면세계를 다듬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의 분주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을 때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액티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 슬럼프가 오면 편안한 시간을 갖고 고갈된 에너지를

슬럼프 극복하고 밀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생각하며 인내해야 한다”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

인내(Endurance)

사람들은 중도에서 쉽게 포기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다고 성공하지 못한다. 또 아이비리그 나 왔다고 출세 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두려움 없는 강한 용기와 신념이 있다고 해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와 끈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있어야 한다. 사회생활을 잘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살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인 것이다.

전화위복(Blessings in Disguise)

16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친구는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하기로 했다. 그는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다. 1년, 2년, 3년, 4년 동안 그는 페인트를 온 몸에 뒤집어쓰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4년 후 그림이 완성되어 포장을 뜯었을 때는 교황도 깜짝 놀라고 그 친구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랐다. 불후의 대작이 천정에 드러났던 것이다.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대 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이 작품은, 처음에는 친구의 간교한 음모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음모가 미켈란젤로를 성공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희망(Hope)

영국의 역사학자인 칼라일은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말했다. 한때 절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참을 것은 참고, 인내할 것은 인

주었다. 그런데 그림 밑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카네기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그림의 유래에 대해서 물었다.

“제가 가난한 시절에 실패와 좌절 속에 슬럼프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고객을 방문 했다가 바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엄습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그분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그림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나에게도 밀물 때가 온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그림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이 힘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을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왜 오늘날 살고 말 사람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가? 산을 오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그만두면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Leadership Commentary 3: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여라.

슬럼프가 오면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빠른 속도로 걸어 보라. 조깅 하나만으로 슬럼프를 단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인간의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체적으로 유쾌해지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사실 무슨 일든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슬럼프에 빠져 무기력증에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회복의 때가 온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연말 슬럼프를 극복하고 밀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3:1-2).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성탄의 마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성을 띤 인사라고 “Happy Holiday”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인지 모르게 축하하는 분위기로 들떠있다.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의 여러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등 모든 절기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절기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보고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의미를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성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만심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다. 낮아지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나의 경력, 자질을 알려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 태도이다. 가끔씩은 낮은 자리에 머무르려는 것이 애초에 바보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성탄을 맞으며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에 나를 비추 본다.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내가 지닌 권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지 침체당할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내 모습을 본다. 특별히 한국사람으로서 인종적인 무시를 당하는 것을 느낄 때면 더 많이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본다. 스스로를 비위 무런 땅에도 상관 없는 종의 모습을 택하신 예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민감한 나를 본다. 그러면서도 상관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위 상한다고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본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자만심을 다 내려놓은 겸손의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외롭고 험한 길을 가신 분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나를 본다.

나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성탄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없는 참으로 답답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한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온 천하가 기뻐할 소식이다. 바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도무지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을 보며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귀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실 분이 되셨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부족해서 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씻기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간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내가 비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여쭙어 본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흉내 내면서 성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lpyun@apu.edu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 | | |
|-------|---------|----|------------|
| 대 학 부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 | |
|-------|-----------|----|------------|
| 대 학 원 | 목 회 학 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여교역학과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1월 27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토요칼럼

역사(歷史)의 판단(判斷)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역사의 판단은 늘 조금씩 낫다.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한계다. 역사란 과거를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앞설 수 없는 까닭이다. 문제는 이런 역사를 약용하는 실체들이다. 외환은행,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등을 인수했던 외국기업들은 모두 '먹튀'를 목격한 검은 세력들이었다. 뒤늦게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고는 철수해 버렸다. 기회의 앞에는 나뭇거리라는 머리가 무성하나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 잡을 수가 없다는 비유처럼 이미 배를 불리고 떠나버린 먹튀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다. 또한 역사의 판단이 다 정확한 것도 아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인

류의 역사에서 실체가 드러난 사건 혹은 상황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되짚어보자. 대다수가 배일에 감춰져 있거나 모호할 뿐이다. 어쩌면 잘못된 진실을 역사의 사실로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것제의 일, 또는 불과 몇 년 전의 아주 중요한 것들조차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없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이 사람이다. 내 편이라 여겼던 자들의 배반과 변심이 난무한다. 양심선언(良心宣言)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앞세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배반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한다. 업무상 알고 있던 내용을 까발리며 언론과 불순세력의 먹거리를 자극하여 침순봉대를 연출하고 심지어는 선거를 의식해 양심에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며 말장난을 하는 철면피도 있다. 배신과 배반을 양심

선언이라 치장하고 늑대의 양심에 양의 털을 쓴 채 사리사욕을 챙기는 파렴치한들이다. 걸핏하면 국민의 대변인이라며 민의를 들먹인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민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도 많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위해고 민의를 대변했는지 몰라도 어불성설로 자신을 포장하며 안하무인의 행태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역사가 밝혀내 주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영원히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까닭이다. 그런 역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양의 털을 쓴 늑대들은 국민의 여론과 민의를 내세우며 한껏 선동(煽動)한 뒤 음습한 그늘로 숨어버린다.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될 것이나

거기에 진정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만 있는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 세력들은 대통령의 탄핵이 가려지면 그 즉시 모든 내각이 총사퇴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핵의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그 판에 내각도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가 되고 만다. 가장 시급한 국방이 마비되면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무역장벽과 사드 여파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외교와 무역이 실종되면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산산조각으로 파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글을 쓰는 도중에 탄핵이 가결되었다. 29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

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에 무효 7표의 압도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제부터 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다. 특의만만하게 웃으며 이 사태를 만든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체제의 수순을 밟겠다고 베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은 꼭두각시다. 정치의 본질이 달린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그에 편승한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심판의 뒤에 숨어있다. 절대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세치 혀와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손가락만 움직인다. 그 실체들은 권력심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도 잘 안다. 그 잘난 뺑도 다 빼어줄 듯 알량대던 자들의 배반과 배신을 그들이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의 주변에 있던 드러난 자들이 모두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떠나갔다. 심지어는 구속이 되면서도 자신들의 몫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시국을 주도하는 보이저 없는 손들이 혀를 내두르며 조심할 것이다. 역사의 철퇴를 맞지 않고 어떤 심판에도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로 쫓겨 숨은 채 조종할 것이다. 오늘의 역사도 언젠가 밝히 드러날지 아니면 묻히고 말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놀아났는지, 국적이 농단됐는지, 그 파국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사가 심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200만 명의 분노가 4800만을 대변할 수도 없고 설사 그랬을지라도 그것이 옳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200만이 속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속았는지 그도 아니면 추악한 시도가 제대로 정죄를 받은 것인지 속단할 수는 없으나 언젠가 역사가 이를 밝혀 주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뒤에 숨은 세력까지 청천백일 하에 다 드러나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다만 이러한 때에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선장 없이 표류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 호를 올바르게 이끌었으면 좋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지금이 바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길 것이라 믿는다. hanmac@cmi153.org

세 번째 통곡기도회, 서울서 연다 2017년 3월 1일, 그날까지선교연합 주관

지난 2004년과 2005년 LA에서 열렸던 통곡기도회가 이번에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7년 3월 1일 서울 치유하는교회(담임 김의식 목사)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한 한민족 통곡기도대회가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 주최로 열린다. 대회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 △탈북자들의 안전한 탈북과 이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 △북한 동족과 탈북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교회들의 연합된 기도운동과 헌신을 위한 기도 △위기 속에 혼돈을 겪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위한 기도이다. UTD-KCC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는 "통곡기도회 10년 이상 해왔다. 기도회 통해 북한인권법 통과되었다. 한국 상황이 어렵지만 탈북자 증가하고 있어 그들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3월 1일 한국에서 한다. 한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이 개최하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한 한민족 통곡기도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손인식 목사,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과 해외에 관심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UTD-KCC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는 "이번 통곡기도대회는 2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최대사명이 기도다. 지난 2004년 9월27일 LA에서 통곡기도회 한 것이 큰 봉화불이 돼 그 다음 해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22000명 참석해서 뜨겁게 민족적 기도회를 했다. 이번에 열리는 대회가 세 번째 종합적 기도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손 목사는 "두 번째 통일이 더 임박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민족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대회이후 통곡기도회의 횡수를 3-5배 더 확장하게 될 것이다. 1919년 3월 1일 민

족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었던 그 마음으로 기도회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탈북과 보호, 북한 동족과 탈북자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운동과 헌신 등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대통령 탄핵 등 비상사국 속의 조국이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꼽는다. 기도회와 함께 주재별 메시지, 탈북자 및 북한 사역자들의 간증, 특별 합창 순서도 있다. 주최 측은 해외 참가자의 경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목회자들이 참가할 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항공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도 있다. 손인식 국제대표는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최우선의 사명"이라면서 "이 기도회가 봉화가 돼 북한을 향한 기도가 전국과 전 세계로 들쭉처럼 번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949)297-3788, 카카오톡 아이디 utdusa1, 이메일 utdusa21@gmail.com (박준호 기자)

필그림교회 교단탈퇴, 노회에서 부결 PCUSA 동부한미노회 제80차 정기노회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지난 6일 제80차 정기노회를 갖고 필그림교회 교단탈퇴를 부결시켰다. 오후 6시 뉴저지 머릿돌교회에서 열린 노회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필그림교회 건을 처리하기 위해 앞선 회무들은 빠르게 처리했다. 지난 정기노회에서 수정해 바뀐 "교단 관계해소 정책(CDP)"을 받았으며, 사무총장 청빙위원회는 새 사무총장으로 산돌교회 담임인 김현준 목사를 추천해 통과했다. 소망교회(박상천 목사) 부목사 서정호 목사의 청빙을 허락했으며, 에셀교회 설립 및 조재원 목사의 조직목사 가입을 허락했다. 은혜교회 담임목사로 이명환 이상훈 목사를 목사회원에서 사제했으며, 김충홍·이승준·임정섭 목사를 노회명단에서 삭제했다. 구 교단관계해소정책(GDP)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필그림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1,186명이 투표한 결과 교단탈퇴 찬성 1141표, 반대 37표를 얻었다. 이어 교단탈퇴 마지막 과정으로 필그림교회측은 교회재산 평가와 함께 60만 달러를 5년에 걸쳐 내겠다고 노회에 제안서를 냈으며 조정위원회는 이를 노회에 상정했다. 허봉기 노회장은 60만 달러 제안에 대해 "교단에서 정한 방식은 없다. 필그림교회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총회에서 요

구하는 비율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허봉기 노회장은 교단에 남는 교인이 있을 때 예배처소 등 환경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별도라고 밝혔다. 이후 필그림교회 교단탈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반토론 후 뉴저지 필그림교회 교단관계해소(교단탈퇴)에 대한 비밀투표가 진행돼 찬성 24명(30%), 반대 56명(70%),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필그림교회 교단탈퇴와 같이 상정됐던 필그림교회 양종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의 교단탈퇴 건은 교회의 교단탈퇴가 부결됨에 따라 본인들 스스로 철회했다. 허봉기 목사는 교단탈퇴가 한 번 부결되면 총회에 신속적인 입장이 결정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천을 통해 노회장 이상철 목사(머릿돌교회), 부노회장 장신욱 장로(뉴욕한인중앙교회), 중앙협의회 회장 허봉기 목사(잔양교회), 회목서기 박순진 목사(잠원교회) 사무총장 및 정서기 김현준 목사로 선임됐다. 한편 필그림교회 전에 동부한미노회 최초로 교단탈퇴 신청을 한 후 그동안 과정이 중단됐던 뉴욕하운교회(뉴욕)는 새로운 교단관계해소정책에 따라 과정을 처리해줄 것을 청원해 받아들였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필라교협연합성탄찬양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필라교협 연합성탄찬양제 11개 교회 참가

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천 목사)는 지난 11일 오후 6시 필라 벨렐장로교회(담임 안재도 목사)에서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를 개최했다. 회장 김영천 목사는 "각 교회서 참여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오늘 헌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찬양예배는 부회장 박도성 사관사회로 구세군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시작으로 필라한빛교회 찬양대(지휘 배수웅)의 '하나님과 함께라면'에 이어 필라 카메라합창단(지휘 박해란)의 '하나님의 은혜, 평화의 기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란 찬양에 이어 총무 이경준 목사가 기도했다. 연이어 필라 안디옥교회 연합찬양대(지휘 김민수)가 '사랑의 왕'을 찬양하고, 벨렐장로교회 바리톤 하태규가 '천변을 불라도'에 이어서 벨렐교회합창단(지휘 하태규)이 '주는 포도나무', '주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찬양 후 서기 김병

일 목사가 성경봉독(눅2:8-14)을 했다. 이어서 새한교회 흥성중앙단의 '복있는 자', 영생장로교회 강태웅, 김주래 두엣의 '사명', 기쁨의교회 남성중앙단의 '사랑이 오셨네' 아프리카 주기도문' 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영천 목사가 "큰 기쁨의 소식"이란 제목으로 "인류 최대의 복된 소식인 구세주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자"고 설교했다. 김연하 장로의 헌금기도 후 메조소프라노 김민수의 '나를 통하여', 찬양과 목회자 일동 찬양, 몽고메리찬양대(지휘 지선영)의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 특별 찬양, 뉴커버넌트교회의 뮤지컬러 캐롤 프레이저의 찬양, 할렐루야연합찬양대 후 안재도 목사 축도, 안문균 목사 감사기도 후 벨렐교회서 제공한 다과로 친교를 나눴다. 한편 필라교협 2017년도 신년 기도회와 하례회는 1월 8일(주) 오후 5시 영생장로교회(담임 배운영 목사)에서 만찬과 함께 개최된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샬롯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전유니버시티, 음악전문인들과 협연 샬롯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공연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 10일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Christmas in Charlotte 공연을 가졌다. Chun University와 공동 주최하고 Opera Carolina 후원으로 개최된 이 기념음악회는 본 교회 유스콰이어의 캐롤 메들리를 시작으로 동 교회 음악인들과 지역사회 전문 음악인들 그리고 전유니버시티 뮤직 캠퍼터선 1등 입상자들의 찬조출연, 특별히 오페라 캐롤라이나 지휘자인 제임스 미나와 15명 단원이 출연해 격조를 한껏 높였다. 전유니버시티의 남교 교수가 지휘하는 스트링 오케스트라, 콘서트 콰이어 그리고 김진호 교수가 지휘

하는 전유니버시티 오케스트라 공연은 아름다움을 더욱 선사했다. 특별히 전교인 찬양대원들과 함께 음악전문가들이 전유니버시티 이영기 음대 학생의 지휘로 연주한 마지막 순서, 헨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로 대미를 장식했다. 나성균 목사는 "합창 출연진들의 기도와 경건, 풍성한 음량과 음폭 그리고 함축소리로 나오는 전문성은 나무랄 데 없는 새로운 음악의 장을 여는 것 같은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앞으로 교회와 전유니버시티는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 꿈을 꾸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NTSW가 주최한 한인교회사역 미니컨퍼런스에서 주강사로 나선 이승현 ITS총장이 강하고 있다

신앙 대물림...이민교회 사역방향 논의 NTSW 주최 한인교회사역 미니컨퍼런스

NTSW(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총장 존 딜리아 박사)가 주최한 한인교회사역 미니컨퍼런스가 'A Gathering of Korean American Pastors to Reflect on the Future of Korean American Ministry in Southern California'란 주제로 12일 패서디나의 웨스턴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개최됐다. 데이빗 탐핀슨 이사장의 환영사와 학교소개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최훈진 목사가 '대를 잇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최 목사는 "한인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언어의 장애, 문화의 장애 세대의 장애가 있다. 이는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지 항상 1세대만 섬기는 교회가 되는지에 대한 분기점에 서있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교회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신앙의 대물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교회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과제"이라 말했다. 강의후 참석자들이 그룹토의를 했다. 두 번째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이승현 박사(ITS총장)는 '선지자적 소명의 장소인 바벨론유수-다니엘서 연구'를 통해 이민한인교회의 사역방향에 대해 나누었다. 이 박사는 "현재 북미지역에 신학교는 소폭 증가했지만 목회학적 사고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통계를 보면 3만명 정도 등록한 학생수가 감소했다. 반면 소수민족들이 신학교입학생이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이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기성종교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미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독교인들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무교자 무신론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기독교인 이민자 유입이 많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강의를 강일준 목사가 '미래를 위한 교육'이란 주제로 강의했으며 존딜리아 총장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제 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와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이 주최하는 제 4회 선교적교회 세미나가 2017년 3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버지니아 리치먼드 주예수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이학준 교수, 배현찬 목사, 신혁선 교수, 최병호 목사, 노승환 장로.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선교사는 등록비 면제. ▲문의: (804)560-7500 www.LJKC.ORG

“크리스마스의 기적: 성탄연합찬양축제”

뉴욕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가 주관하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5개 이사회회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성탄연합찬양축제”가 18일(주) 오후 6시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다. 5개 교회는 뉴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 뉴저지 아폴로연합감리교회(담임 안병훈 목사), 필그림교회(담임 양준길 목사). ▲문의: (718)224-8533

세계성령운동뉴욕협 대표회장 김영환 목사 취임예배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제9대 대표회장 김영환 목사 취임예배가 12월 20일(화)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원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914)393-1450

뉴욕효신장로교회 자선음악회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주최하는 멕시코 한인후예들과 현지 어린이들의 학교건립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12월 18일(주) 오후 6시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티켓은 20달러. ▲문의: (718)762-5756



지난 7일 뉴욕나눔의집과 한국 (주)새움이 MOU를 체결했다. 박성원 뉴욕나눔의 집 대표(오른쪽)와 김도형 (주)새움 대표.

뉴욕나눔의집, (주)새움과 MOU 체결 예방, 상담, 교육, 재할, 자격취득 기회 제공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한국 (주)새움(대표 김도형 목사)과 중독 관련 사업을 위해 MOU(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지난 7일 뉴욕나눔의집에서 MOU 사인을 한 자리에서 박성원 목사는 “중독자와 노숙자들을 돕는 뉴욕나눔의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알코올중독 관리는 전문가들의 일인데 한인사회 사정상 어려움이 많고 효율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번에 김도형 목사님을 만나 전문성을 갖고 이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으며, 뉴욕 뿐 아니라 미동부 5개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목사는 현재 (주)새움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며 △진언격교육을 통한 전인적 치유와 △가장강화 △유치원부터 예방교육 △대사회 홍보 및 시민강화 △목회자 세미나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으로 △중독자 전담교회 설립 △신학교에 중독학과 설치 △좋은 환경에서 철저한 신앙교육 △후속 교육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뉴욕나눔의집과 (주)새움은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주)새움은 뉴욕나눔의집 중독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방, 상담, 교육, 재할,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독 관련 리더 육성에 적극 협이하기로 결의했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코코장애인센터 크리스마스음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노비, 코코장애인센터 방문 크리스마스음악회

연말을 맞아 무료 크리스마스 릴레이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 중인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12월 10일 중중장애인들이 있는 퀸즈 플러싱의 코코 장애인센터(회장 전선덕 권사)를 찾아가 평소 공연을 볼 수없는 장애인들과 가족에게 신나는 케를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 후에는 코코 식구들이 직접 만든 예쁜 카드를 감사의 선물로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선덕 권사는 “이 날은 우리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1년에 한번 진지하는 날이다. 한 아이는 어제 밤부터 인사서 12시가 넘어서까지 잠도 안자고 좋아하며 기다렸다. 벌써 10년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준히 찾아와 봉사해주고 있는 이노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있었던 공연의 후원은 뉴욕 레이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 중인 이노비(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12월 10일 중중장애인들이 있는 퀸즈 플러싱의 코코 장애인센터(회장 전선덕 권사)를 찾아가 평소 공연을 볼 수없는 장애인들과 가족에게 신나는 케를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유해림씨가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뮤지컬 배우 김소향과 황주민, 기타 정재영과 드럼 석다연이 참여했다. 이노비의 크리스마스 아웃리치 콘서트는 12월 17일 뉴저지 밀알에서 뉴저지 지역 한인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맨해튼 드윌링턴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브 음악회를 갖는다. (기사제공: 이노비)

“하나님, 우리 조국을 보우하소서”

뉴욕, 뉴저지, 필라사 구국기도회 및 시국강연회

대한민국이 대통령 탄핵으로 힘든 가운데 미동부에서도 조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개최됐다.

지난 11일 뉴욕에서는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와 평통뉴욕협의회가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의 후원으로 주최한 구국기도회와 시국강연회가 오후 4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김명옥 목사(뉴욕지회 부회장) 사회로 애국가와 미국가를 합창한 후 건국대통령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지회장 안창의 목사와 평통뉴욕협의회 정재건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대표기도는 이만호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헌금송 김영환 집사, 헌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서 안창의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금기도 김상태 목사, 통성기도 김영환 목사(조국의 국론통일을 위해서), 허윤준 목사(한미안보동맹 공고화를 위해서), 현영갑 목사(동포사회를 위해서)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땅을 고쳐 주소

서”(역대하7:1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비난보다는 기도가 앞서야 하는데 기도가 없이 비난만 앞선 것이 문제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대로 그들을 사용한다”며, “한국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순결과 사랑과 정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를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나태와 이슬람의 확장,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 사회악을 조장하는 미디어 세력에 무관심하고 침묵한 죄, 탐욕과 이기주의, 교만과 배도, 말쑥에 불순종한 죄를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 이 난국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시국강연회는 문무일 국민사회복합운동본부 총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허평환 예비역중장/전 기무사령관이 진행했다.

모든 순서는 김남수 목사(건국대통령이승만기념사업회 명예회장)



퀸즈장로교회 성탄절 칸타타 공연에서 합창대가 찬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16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로저 스트래더의 뮤지컬 “사랑의 왕” 11곡 완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11일 저녁예배를 통해 2016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공연했다.

이날 공연곡은 로저 스트래더의 뮤지컬 “사랑의 왕”(King of Love)으로, △사랑의 왕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구하신 주 이름 △죄인의 구세주 △쉴 방이 없네 △잘 자라 거룩한 아기 △주께 영광 △알렐루야! 찬양! △은 세상이 기뻐하라! △사랑의 왕 △피날레 등 11곡을 연주했다.

성탄절 복장을 한 200명의 찬양대원, 50명의 어린이 합창단, 40명의 관현악대, 그리고 40명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윤원상 전도사의 지휘로 진행

됐다. 찬양대는 어린이에서 노년까지 한국어 회중과 중국어, 영어 회중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음을 증거했다.

공연이 끝나고 김성국 목사는 칸타타를 준비한 성도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심을 다시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고, 2천여년전 마구간에서 나셨던 예수님이 사랑의 왕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가운데 임하시고, 사랑의 왕께서 통치하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되기를 축원했다.

모든 순서는 장영준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제3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랑의 순례...강사 이동원 목사 패밀리터치 제3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제3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지난 5월과 6월 1박2일 동안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와 가정사역팀을 초청해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부부의 일생을 살피고 함께 나누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더 견고히 세우도록 돕는 영성 프로그램인 사랑의 순례에 참가한 목회자 부부들은

은 부부됨에 감사를 표현하며 부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지구촌교회의 성서적 부부 영성 프로그램인 사랑의 순례는 98년부터 70여회동안 2400여 가정을 섬겨왔고, 그 중 국내외 해외의 목회자 및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랑의 순례를 통해 800여 가정의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를 섬겨왔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4면에서 계속>

개인의 경건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공동체적 경건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신앙은 ‘세상과 구별된’ 선택과 행동을 요청한다. 그런데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이는 종종 소수인 나 개인의 ‘존중 받을 취향’ 정도를 충족시키고, 그것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라는 명령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역행하는 ‘반문화’다. 세상과 싸우는 영역이다. 이는 공동체 신앙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다. 개인도 신앙적 싸움을 계속할 수 있지만, 다원주의 사회의 ‘개인의 취향’ 논리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공동체 신앙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공동체는 우리의 윤리를 형성하며, 우리의 행동을 지도하는 명시적

이며 암묵적인 규칙들을 형성한다. 성경적 윤리명령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훨씬 많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원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요즘은 인구 이동성도 많고, 사람들의 노동시간 또한 매우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선 잠시 머문다는 인식이 퍼다하다. 내 이익을 위해 잠시 머물러 얻을 것을 얻고 ‘충전’되고는 떠나는 곳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머무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함께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요청 방법은 긍정적인 관점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함께 형성할 공동체와 이에 참여할 개인의 역할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야 머물라는 요청이 힘을 얻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4-10명의 소그룹 뿐 아니라 3-40명의 중그룹 공동체도 반드시 추가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소그룹은 신앙의 역동을 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지만 한 둘이 떠나면 금방 해체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중그룹 단위의 모임과 교제의 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중규모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일예배와 혼란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그룹 예배를 반드시 개인적 ‘강의 수강’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만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적 비전이 제시되고 그것이 공유되며,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도전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적 설교에서 전도적 요소를 포함하

고, 전도적 설교에서 교육적 요소를 항상 포함하데서 출발한다. 또한 세례와 성찬의 공동체적 예전을 미리 예고하고 존중하며 준비하게 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례는 공동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며, 성찬은 함께 나누는 것으로, 개인적 예배가 아닌 공동체적 예배의 참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성경적 본질적 요소다.

결국 우리의 교회는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소그룹, 중그룹, 그리고 대그룹의 3중 울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각 울타리를 함께 세워야만 새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유실되지 않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히 성장하며 건강히 사역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목회자들의 영적 권세가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 2017년에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협, 성령충만한 목회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하자”며 회원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만찬후 진행된 개회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성길 목사의 인도로 기도, 김광일 목사, 설교 옥영철 목사, 광고 이정찬 목사, 축도 김정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옥영철 목사는 “헌신”(롬12:1)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탄의 계절을 맞아 성탄의 참된 의미가 하나

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성육신) 낮고 천한 세상을 방문하셔서 친히 헌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헌신의 실천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은 신임회원 가입시 “확대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연속 2회 이상 총회 불참과 연회비의 2회 이상 연속 미납시 회원권이 정지된다”로 개정했다.

이어서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공천위원회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김성길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고, 수석부회장은 투표를 통해 한태국 목사를 선출했다.

이어서 신임회장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들의 성령충만과 영적부흥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김성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목회자들의 영적 권세가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 2017년에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협, 성령충만한 목회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하자”며 회원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만찬후 진행된 개회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성길 목사의 인도로 기도, 김광일 목사, 설교 옥영철 목사, 광고 이정찬 목사, 축도 김정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옥영철 목사는 “헌신”(롬12:1)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탄의 계절을 맞아 성탄의 참된 의미가 하나

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성육신) 낮고 천한 세상을 방문하셔서 친히 헌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헌신의 실천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은 신임회원 가입시 “확대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연속 2회 이상 총회 불참과 연회비의 2회 이상 연속 미납시 회원권이 정지된다”로 개정했다. 이어서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공천위원회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김성길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고, 수석부회장은 투표를 통해 한태국 목사를 선출했다. 이어서 신임회장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들의 성령충만과 영적부흥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의 폐회기도 및 축도로 마쳤다.

한편 12월 오후 8시에는 뉴저지 교협이 주최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뉴저지연합교회(담임 안성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도회는 윤명호 목사(교협부회장) 인도로 설교는 김중국 목사(교협회장)가 “자는 자여 어찌이뇨?”(은1:6)라는 제목으로 말했다. 기도는 스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위하여/정창수 목사 △한국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정성만 목사 △한국의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이우용 목사 △대한민국에 공화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유병우 목사 △국제적 악한 세력이 한반도에 침투하지 않도록/허상회 목사 △미국과 미국의 위정자들과 및 교회를 위하여/김정문 목사 △이민교회와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및 성도들을 위하여/이병준 목사 △말씀의 회복운동을 위하여/양준길 목사,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헌금기도는 안성훈 목사가, 축도는 신의철 목사가 맡았다. 필라델피아 지역도 12월 12일 오후 7시 새한교회(담임 고택원 목사)에서 구국기도회와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한기부필라델피아와 이승만기념사업회, 신회회복국민연합필라델피아 주최한 구국기도회 설교는 성기호 목사(전성결대 총장, 전 벅스카운티교회 담임)가, 시국강연회는 허평환 장군,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문무일 신회회복국민연합 사무총장이 맡았다.

또한 13일 오전 11시부터는 서라벌 식당에서 동포지도자들과 한국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커네티컷교협 12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새 회장 김성길 목사, 부회장 한태국 목사 커네티컷교협 제12회 정기총회

커네티컷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옥영철 목사) 제12회 정기총회가 12월 4일 오후 5시30분 커네티컷 주사랑교회(담임 김성길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김성길 목사, 부회장에 한태국 목사가 선출됐다.

김성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협회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목회자들의 영적 권세가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 2017년에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협, 성령충만한 목회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하자”며 회원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만찬후 진행된 개회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성길 목사의 인도로 기도, 김광일 목사, 설교 옥영철 목사, 광고 이정찬 목사, 축도 김정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옥영철 목사는 “헌신”(롬12:1)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탄의 계절을 맞아 성탄의 참된 의미가 하나

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성육신) 낮고 천한 세상을 방문하셔서 친히 헌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헌신의 실천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은 신임회원 가입시 “확대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연속 2회 이상 총회 불참과 연회비의 2회 이상 연속 미납시 회원권이 정지된다”로 개정했다.

이어서 신임회장이 취임하는 공천위원회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김성길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고, 수석부회장은 투표를 통해 한태국 목사를 선출했다.

이어서 신임회장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들의 성령충만과 영적부흥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LA사랑의교회 제4기 임직예배에서 김기섭 담임목사가 임직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라” LA사랑의교회 제4기 임직예배...총56명 임직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제4기 임직예배가 11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기섭 목사의 집례로 열린 임직식은 교우 및 사무장로 3명, 명예장로 2명, 안수집사 19명, 시무권사 27명, 협동권사 1명, 명예권사 4명 등 총 56명에게 서약, 안수 및 공포, 임직패 증정으로 이어졌으며 정회근 장로가 임직자 대표로 인사했다.

이어 전교우들이 축복송을 부르며 임직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회주 목사(PCA서남노회 중경노회장)와 노장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가 축사했다.

임직식에 앞서 오종석 목사의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나외순 장로가 기도했으며 LA사랑찬양대(지휘 황광선 집사)

가 찬양했다. 이어 김기섭 목사가 '리더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빌1:12-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기섭 목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탄생 10주년을 맞아 일꾼을 세우는 것에 감사하다. 교회는 담임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생각이 깊이에 영향 받는다. 신앙적 영역 생각이 깊어지면 교회의 크기가 자라나야 교회의 소망이 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상선 목사(게이트웨이장로교회 담임, PCA한인교협 상임총무)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교실은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갖은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총118명 대통령 자원봉사상 받아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교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사랑의교실 자원봉사 고등학교생들이 미국 대통령이 주는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올림픽장 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린 시상식은 매리슨 OC사랑의교실 교사의 기도로 시작돼 금상 46명, 은상 27명, 동상 28명, Lifetime Achievement Award 2명, Congressional Certificate of Recognition 15명 등 총 118명이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은 이영선 목사(미주밀알총장단)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남가주사랑의교회 가스펠 국악 콜라보 뮤지컬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가 오는 17일(토) 저녁 5시 가스펠 국악 콜라보 뮤지컬 '춘향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공연한다. 본 뮤지컬은 남가주사랑의교회 드라마팀 'THE 바라봄'에서 마련했다. ▲문의: (714)388-2642



주께로 미션합창단 주최 부모사랑 찬양제에서 실비치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의 화평 누리는 복된 가정 되자” 주께로미션합창단 주최 부모사랑 찬양제

주께로미션합창단(단장 김영대 목사) 주최 부모사랑 찬양제가 11일 오후 5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영대 목사는 인사말에서 "부모사랑 찬양제를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힘들고 어려운 이 민생활에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가정, 화평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자는 취지로 찬양제를 마련했다.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운 용기를 주는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일 목사의 진행으로 열린 찬양제는 송의코러스(지휘 이영두), 조이플남성중창단(지휘 서문숙), 연세피아너(지휘 이영두), CTS Idream Choir(지휘 강민석), 주께로미션합창단(지휘 이종현), 카이로스미션위십(단장 김민경), CTS 여성합창단(지휘 김명옥), 실비치합창단(지휘 백경환)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유수진 자매와 랜디김밴드가 실용풍을 인도한 후 이우후 목사(OC교협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주최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행사가 한길교회에서 열렸다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재갈소명 등 3명에 총 6천달러 장학금 수여

라크마(뮤지디렉터 윤임상 교수)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행사가 10일 오후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라크마첼비피아어가 라크마첼비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공연했는데 라크마 부지휘자 장창환 씨의 지휘에 맞춰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오페라 Cavalleria Rusticana의 Intermezzo를 연주했으며 소프라노 김희우와 테너 오우영 목사가 The Prayer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이어 초청지휘자 오정근 씨의 지휘에 맞춰 오페라 Norma의 'Mira, O. Norma... Si, Fino all'ore'와 Glow. Laudate Dominum, Te Deum을 연주했다. 한편 이날 2016 장학금 시상식 및 장학생 연주회도 함께 열렸는데 1등 피아니스트 재갈소명 형제(3천달러), 2등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재 자매(2천달러), 3등 피아니스트 이찬형제(1천달러)에게 장학금 시상과 함께 윤임상 교수의 지휘에 맞춰 협연을 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는 12월 8일과 9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인 가정사역자 교육 수련회, 10일 한인 위탁가정 설명회를 가졌다.

위탁가정어린이 성탄파티 21일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사역자 교육수련회 등 가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1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LA아동보호국과 함께 웨스트코스타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날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위탁가정 아이들이 참석, 지난 11월 한인가정상담소가 진행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통해 보내온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한인가정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한인 가정사역자 교육 수련회'를 엔시노 지역에 있는 홀리스피리트리트센터에서 열었다. 한인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 신학생 등 25명이 참석해 '가정폭력, 어떻게 대응할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정의와 형태, 패턴,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으며 한인 가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 사례나 아동학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배우고 토론했다. 이번 교육 수련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한인 목회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또한 10일에는 한인가정상담소 강당에서 한인 위탁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위탁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소설위커는 물론 실제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는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여성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더텐트 3주년기념 '해피크리스마스' 공연 17일 오후 6시 마당물 광장

더텐트(대표 다니엘발 목사)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는 17일(토) 오후 6시 마당물 광장에서 열린다. '해피크리스마스 위드 더 텐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더텐트가 한인타운내 건전한 공연문화를 심기위해 마련된 파격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3주년을 맞이하는 공연이기도하다. 특별히 공연은 지난 3년간 더텐트가 기획해왔던 모든 장르의 공연을 총망라해 선보이게 된다. 텐트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많은 한 달에 두 번, 적게는 석달에 한번 꼴로 공연을 펼쳐왔으며 마당에서 두 차례 베키킹을 했었다"며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출연해 클래식 무대를 선보이게 되며 기타연주, 팝, 대중음악은 물론 성탄에 맞는 곡들도 선보이게 된다. 마당물 광장에서 열리는 3주년 공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연은 해피월드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 곡을 연주함으로 성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해준다. 소프라노 김은혜씨, 베이스 이사효씨, 피아니스트 김예은씨와 해븐스밴드, 보컬리스트 이민우 전도사, 트럼펫주자 유광수 목사, 건반연주자 최영광 형제, 기타리스트 김영수 월드미션대학교 교수, 찬양사역자 강근영씨, 수어찬양사역자 김민경씨, 해븐스 밴드가 출연한다. 또한 베네스대학교에서 보컬을 전공하고 있는 박정현, 김육준 씨의 무대도 선보이게 된다. ▲문의: (213)999-4909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경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민족문화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성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곤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9:45(영), 11:00(성)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02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 | |
|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찬양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1:20 E.M.찬양예배: 오후 1:20 영아찬양예배: 오후 5: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9:20 주일학교: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6:30(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 |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하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성탄)4부예배: 오후 5:40(월-토)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
|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성인일예배: 오전 9:15, 11:30 임아예배: 오후 1:30(수-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bel@bkc.org 18700 Harvard Ave., Anaheim, CA 92612 www.bkc.org |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 엘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성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학교: 오후 8:00 www.ircv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성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
|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 주님세계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성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nchurch.com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cic.org |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periel Hwy, Yorba Linda CA 92866 |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stone.com / e-mail: pastor@iacorners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 토렌스조교회 담임목사 : 김박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성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96-4400 Fax. (718)9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shalom의 교육학(11)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교육 방법론(2): 세가지 형태의 교육 방법론

쉐마교육은 모든 교육이론의 근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신 6:4). 뉘만하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쉘마 שמע(들다라는 사마아 명령형)를 따라 쉘마교육이라 부르고 이를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뿌리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히브리인들이 세상에 태어나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배우는 성경구절이기도 하다.

사실 신명기 6:4-9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들에게 지우는 것이 특징이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장은 일상생활이다.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하루 종일동안이다.

7절을 다시 읽어보자. “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육을 학교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이 학교 교사 혹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몫이라고 책임전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선 교사들에게 불만을 말하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시 읽어보자. 자녀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가는 동안이든지, 하다못해 쉬고 있을 때에라도 교육은 쉬 없이 행해야 되는 과정이다.

8-9절에 보면, 구체적인 교육의 영역과 범주를 나타내주고 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손목은 사람의 육체적 활동의 범주를, 미간은 사람의 정신적 생각과 인지적 활동의 범주를, 문설주는 가정 안에서, 바깥문은 사회 전반적 생활의 범주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삶의 모든 범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실시하라는 말이다. 어떻게? 부지런히(7절).

필자가 쉘마 교육을 보고 놀란 것은 오늘날 내로라하는 모든 교육이론들이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동주의 이론, 인지주의적 이론, 경험주의, 아동중심적 방법론, 다지능 이론, 프로젝트

중심 교육방법, 문제해결적 방법론, 상황주의적 이론, 다감각적 가르침, 구성주의, 다문화주의, 아동중심 교육이론 등등... 비록 당시에는 이러한 이름이 없었을지 모르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을 구상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이야기하셨다. 우선 교육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뿐 아니라 글로써, 문서로써, 상징으로서 가르치는 통합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은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학습하는 전 방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은 암기뿐만 아니라 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적용하

내용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다.

주님도 이러한 학습방법론을 많이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신다.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눅24:17). 주님은 대화를 통하여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므로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됨을 느끼게 하였다(눅24:32).

요한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요3:10). 주

이다. 교사가 학습의 촉진자가 되어 학생들이 교육에 몰입을 시킨다. 성경에 그런 예는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략 몇 단계를 거친다. 우선 절실함을 유발하는 질문을 함으로 학습자를 교육에 호기심 있게 몰입시킨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6), 38년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요5:6),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요4:7)라는 질문을 함으로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대화를 통해 갑갑한 주제, 예를 들면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는 사랑의 회복을, 참 생수를 갈급해 했던 여인에게는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병들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통한 병의 치유를 경험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새로운 통찰과 학습의 경험을 제공 받게 된다.

둘째로 주님이 사용하셨던 발견적 교육방법(Discovery learning)이 있다. 이는 귀납적 방법으로 교사는 학습자와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경험, 지식을 갖게 자각하게 하여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게 하는 학습방법이다. 주님이 사용하신 발견적 교육방법의 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시려 하는 것

행학습에 대한 비판적 식견과 통찰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론은 문제해결 접근방식(Problem-based learning)이다. 이것은 학습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자를 독려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 옆에 서서 단지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학습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칫하면 혼란을 초래할 단점이 있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론이기도 하다.

주님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야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에 주님이 요안נם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수많은 무리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므로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걱정되어 예수님께 저들을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시고 이야기한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막6:37). 바로 이것이 문제해결 교육방법이다. 물론 제자들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빌립이 발견한 아이로부터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들식 사송하면서 문제해결 방법론을 적용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 역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워 친히 가서 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식 사송하시며...” 그러기에 문제해결 방법론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스킬, 역량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후에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경에 나타난 문제해결 방법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명,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마 28:19), 역시 문제해결적 교육방법이다. 문제해결 방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 방법이다. 학습자가 어려운 수준을 잘 대처하는 능력과 지식의 수준이 있어야 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협업과 팀웍이 요구된다. 위험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공했을 때 가장 많은 학습 성취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방법은 결국 학습자와 교사간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세가지 방법론: 탐구중심, 발견중심적, 문제해결적 방법은 각각 학습자의 학습수준과 교사의 준비성, 학습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hlee0414@gmail.com

학습자와 교사간 관계 극대화 전략-탐구중심, 발견중심적, 문제해결적 방법 각각 학습자 학습수준과 교사 준비성, 학습주제 특징 따라 적절하게 사용돼야

며 삶으로 체화되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24/7으로 가르쳐야 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인간 사회화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육에 대해 큰 기대와 비전을 가지신 분임에 틀림없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교육자 아니신가?

탐구중심적 교육방법

이런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석한 결과 근래 교육학자들은 예수님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 구성주의 교육방법, 문제중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학습자의 성숙수준과 학습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탐구중심적 방법, 발견주의 방법, 그리고 문제해결적 방법이다.

첫째, 탐구중심적 교육방법(inquiry-based learning)은 학습자의 이해 및 성숙 수준이 비교적 초보수준이어서 교사가 학습을 주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사가 잘 준비된 질의응답의 토를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지적 탐구를 이끌어내고 흥미를 유발하여 새로운 개념, 원칙, 이론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가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통하여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님의 자세한 설명에 결국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요7:50).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갑갑한 그녀의 마음을 읽고 물을 좀 달라(요4:7)고 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셨다.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었고 결국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동녀사람에게 전하게 된다(요4:29).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 세 번 질문함으로 베드로에게 참 용서와 재현신을 다지는 장면 등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탐구의 과정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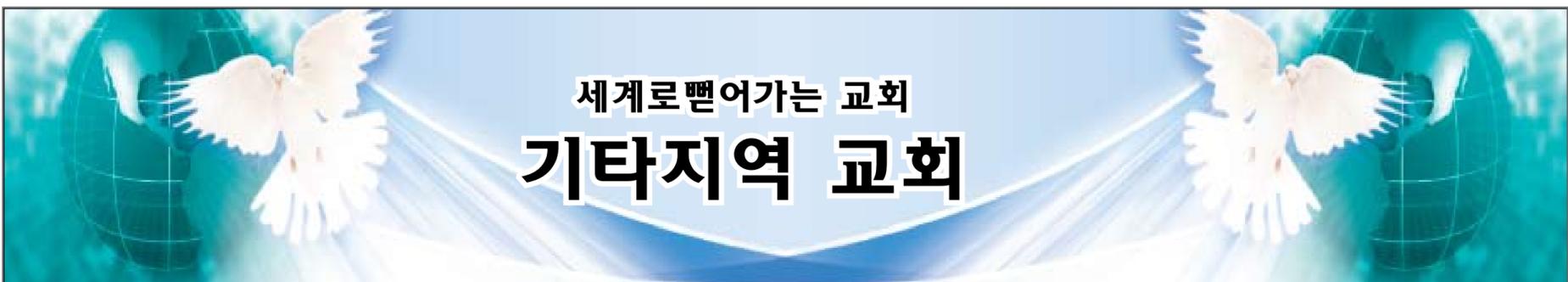
탐구중심적 교육과정의 백미는 일전에 필자가 하브루타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들이 학습자 상황을 이해하고 잘 조직화된 질문이 있다.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갑갑한 학습 필요점을 채워주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구의 교육과정이다. 특히 주님은 교육을 마치신 후에 질문하신다. 그것을 이해하였느냐? Do you not yet understand(마16:8), Have you understood?(마15:51), Are you still lacking in understanding?(마15:16), Don't you understand?(막4:14; 7:18).

이해하도록 질의응답을 통해 가르치는 것, 이를 탐구 중심의 교육과정(Inquiry-based learning)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어떤 개념,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조정된 질문의 틀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 결국 이 과정은 교사중심

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자의 좁은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교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이방인, 죄인들을 포함하는 은혜의 세계를 교육시키고자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한 발견주의적 교육방법이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눅10:29)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주님은 이런 비유를 들고 있다.

왜 그러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형제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전통적인 개념의 형태를 주님은 바꾸기 원하셨다. 그들이 익히 주장하고 있는 기존의 관념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교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발견적 학습방법이다.

그러기에 발견학습은 세 단계를 지닌다. 기존에 익숙했던 지난 학습내용을 버리고(탈학습의 단계),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통하여 새 지식에 대한 통찰을 가진 후(학습의 단계), 그리고 이를 자기 삶과 환경에 적용하는 재학습의 단계이다. 이런 잘 조직화된 학습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새로운 단계의 깊은 지식과 관점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함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발견학습이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잘 계획된 준비가 필요하고 학습자들도 어느 정도의 선



| | | | | | | |
|---|--|---|--|--|--|--|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446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457 |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경):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15 (한/영) 종교개혁예배: 오전 10: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edale, MA 01748 |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오후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10:45 주일학교: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okchurch.org |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전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542-0288, Fax: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 킬린노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세계한인기독인론험회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장려상)(2)

USC 재학 | 안정희



“하나님의 침묵”

-저자 켄 가이어

처음 이 책을 손에 쥐었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책 표지에 있는 웅장한 산의 모습이나 제목이 아닌 책의 제목 밑에 있어 쉽게 놓칠 수 있을 거 같은 작은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문장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망한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는 소망의 담시지'라는 글이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나의 관심을 불러내기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미국복음주의출판협회에서 수여하는 골드 메달리온 상을 수상한 20여권의 크리스천 서적을 집필한 켄 가이어의 책이라는 사실이 또한 나를 놀라게 하였다.

깊은 뜻을 득도한 것 같은 기쁨과 오랜만에 느끼는 아쉬움을 맛보았다.

산악인으로도 유명한 저자는 콜로라도 뉴모먼트에서도 톱기 산맥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프론트 라운지에 거주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수억년 동안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킨 록기산맥을 매일 보며 하나님의 침묵의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 막연히 상상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예상을 뒤엎는 흥미로운 비유들을 선사하며 이 책을 전개해 나갔고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였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삶속에 대담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의 의구심이나 혹은 무관심한 신의 존재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기도 중 불멘소리로 원망 한마디 정도는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또한 부끄럽지만 나 자신이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가혹한 현실의 문제들이 평온한 우리의 삶을 삼킬 때면 우리는 마치 산속 눈 폭풍에 조난당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SOS 구

조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구한다.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간청도 해보지만 그 기도들의 응답은커녕 무심한 침묵 속에서 버림받은 느낌마저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에 아무런 대담이 없을 때 느껴지는 고통을 알아가며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위해 더욱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도 저자는 고난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복잡한 이 문제를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세 사람의 산악인들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가장 알고 싶고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독자에게 풀어 나간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나.

해발 8850미터의 에베레스트는 등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수많은 원정대가 정상을 정복하거나 산에 정복당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오늘날 전 세계 산악인들의 발이 끊이지 않는 산악인들의 성지다. 완만하고 화

창한 에베레스트 산 밑 평온한 티벳 마을과는 달리 정상은 초속 150킬로미터의 폭풍우가 불고 가파른 경사와 자칫 실수하거나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오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밧줄과 등산 도구 그리고 산의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에베레스트 등반 여정과 같이 화창하고 평안한 마을과 베이스캠프를 떠나 산을 오를 때 같이 설레임과 희망을 지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난다. 영적으로 방향감을 잃을 수도 있으며,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험기증이나 동료의 불평 불만이나 혹 허박한 산소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숨을 못 쉴 수도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며 만나게 되는 기복들과 잃어버린 방향을 잡아주고 준비해 줄 수 있는 지도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편이라고 한다. 시편의 다윗은 일생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그런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넘어지고 더 이상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시편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이 책의 말을 생각할 때면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지도의 소중함을 알고 의존하게 되는 등산인들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은 또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책은 나의 기억에서 아마 오래 기억 될 거 같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산에게 정복된 사람들, 다른 말로 산을 오

르다 추락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 공통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이와 밧줄로 묶지 않고 자만하다 순간의 실수로 추락해 에베레스트 어딘가의 이정표가 되어 다른 산악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순간적인 영적인 헛디딤이 우리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 책은 경고하며 마치 끈질기게 하나님과의 줄을 놓지 않았던 다윗과 같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밧줄로 연결되어 함께 간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유능한 등반원과 같은 밧줄을 몸에 묶고 한걸음 한걸음 정상에 향해 나갈 때 그 어떤 말보다도 묵묵히 지도를 보며 믿음으로 한걸음씩 폭풍우와 싸워 나간다면, 그 어떤 최악의 밤도 이겨낼 수 있는 에베레스트 여정같이 우리의 삶속 여정에도 묵묵히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업고 가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여정의 최고의 대신인 그가 있기에 이 여정을 힘과 용기를 내어 나만의 여정으로 남길 수 있지 않나 싶다.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산을 오르기 전에 아래서 보는 산의 모습과 그 산의 정상을 정복하고 산에서 내려다보는 산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치와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우리의 산을 오르는 그 순간부터 함께 동행하여 정상에서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침묵의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책은 나의 기억에서 아마 오래 기억 될 거 같다.

(4면에서 계속)

다시 말해서, 로드리고는 배교를 거부하지만 자신 때문에 고문 받는 신자들을 보며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다.

결국 로드리고는 배교를 상징하는 후미에(성화를 발로 밟는 것)를 한다. 그때 "밭이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네 밭의 아픔을 내가 가엾게 잘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5년 후 배교 신부가 된 로드리고 앞에 기치지모가 찾아와 고백성사를 부탁한다. 로드리고는 고백성사를 할 수 없는 신부이지만 기치지모에게 고백성사를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낸다. 이후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설령 그분이 침묵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앤도 슈사쿠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그는 37세에 폐결핵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다. 약 3년의 병상생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은 왜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라는 의문을 품고서 깊이 고민을 한 후 소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다. 그것이 1966년, 그가 41세 되던 해에 출간한 소설 '침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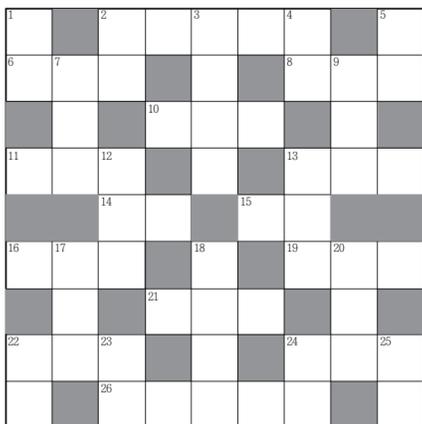
'침묵'에서 앤도가 형상화시켰던 기독교 신앙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감싸 안아주시는 것처럼 약한 인간을 무한히 끌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기독교가 박해 받던 시기에 무자비한 방법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버렸노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조차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하나님을 앤도는 '침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론으로, 1966년 소설 '침묵' 출간된 후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마틴 스코세지 감독 특유의 영상과 리암 니슨과 같은 명배우들의 열연으로, 신앙인들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소설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신앙의 정절을 잃은 이들의 입장만을 깊이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영상을 통해 어떻게 그려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도 영화 '미션'이나 벨 깁슨 감독의 '그리스도의 수난'만큼, 큰 기대와 화제를 몰고 올 것이라고, 미 언론은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14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2. 바벨론제국의 창시자. 꿈꾼 것을 다니엘이 해몽(단1:18).
6. 예수의 동생(막6:3).
8. 유다 산중에 있는 성읍(사20:19).
10. 베나민지파 벨라의 아들. 문둥병 걸린 사람과는 동행(민26:40).
11. 아라비아인으로 아라비아인이 유대를 반역하려함을 증언한 사람(느6:6).
13. 놀라는 병(신28:28).
14. 학술, 기예를 가르치는 사람(담후1:11).
15. 천지와 동서고금의 모든 공간과 시간(행17:24).
16. 배만 팽팽 붓고 내부는 비어있는 창 중의 하나(눅14:2).
19. 자기가 먹거나 쓸 것을 마련함(고전9:7).
21. 큰 임금. 하나님(미4:13).
22. 군사무기를 쌓아 둔 창고(왕하20:13).
24. 시므온의 아들로 요아스 왕을 죽인 자 중의 한사람(왕하12:21)
26. 바사 왕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다(느13:6).

<세로 푸는 열쇠>

- 1. 낮과 밤(살전3:10).
2. 바벨론 포로 시에 이방여인을 취한 자의 조상(스 10:43).
3. 신생아(벧전2:2).
4. 악동한 기운(행9:1).
5. 팔레스틴의 한 지명(삼하2:24).
7. 바사국의 초대 왕(스1:8).
9. 숙직하는 사건의 장소로 인용되고 있다(사28:21).
12.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레8:26).
13. 일정한 거리를 빨리 달리기 하는 사람(전9:11).
17.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
18. 루디아의 직업(행16:14).
20. 그들라오벨의 침략 때 고모라 왕(창14:2).
22. 군인의 집단(단3:20).
23. 부모가 없는 아이(시109:9).
24. 예수의 조상의 한 사람(눅3:26).
25. 목이 마른 듯이 간곡하게 비람(사42:2).

십자말 정답(149)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Dongbu (NY, NJ) Church' (동부(NY, NJ)교회) and 'Hawaii and Okinawa Area'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s various churches with contact info and pastors.

교도소 선교칼럼 (11)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문서 선교와 자원봉사자들

교도소에 많은 재소자들에게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의 신앙서적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문서선교는 2005년부터 여러 나라 언어로 책을 출판하여 많은 재소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재소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간증으로 쓰고 저희 교도소 문서선교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서선교가 성장하는 이유는 교도소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된 분들이 단합하여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서로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필요한 선교인지를 발견하여 기도와 선교 후원금으로 문서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는 콜로라도 한인 기독교회의 이순덕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선교는 왜 필요한가?”

세월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더군요. 제가 벌써 저도 모르는 사이에 78세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80여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크나큰 험난준령도 많이 넘어야 했지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며 감사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5년전 제가 운영하던 자그마한 가게를 정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목상하며 지난날들을 돌아보니 모두 주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창 열심히 바쁘게 살던 시절을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저를 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잠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주님과 친밀하게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 이 생명이 떠나면 육신은 썩어 한줌의 흙이 될 터인데 이 생명이 있는 동안, 건강주시는 동안,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교도소 문서선교 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추구하였지만, 교도소에 관해서는 강도나 살인자 같은 악한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기 두려운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앞서므로 교도소라는 곳은 제 관심 밖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영희 목사님의 신앙간증과 ‘예수님과 걷는 길 1-4’ 목상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며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들의 간증을 읽으며 제 안에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건널 수 없는 가난 속에서 고통하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며 범죄에 연루됩니다. 정신적인 질환과 자살 충동은 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통 평범한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방황하다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까지 오게 되는데 그 재소자들의 배경을 알게 된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간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냉정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계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이 땅에서도 불우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저는 비로소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상에서까지도 교도소 선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43절을 보면 주님의 양 옆 십자가의 탈렸던 두 수감자 중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수감자들도 사형 받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모두, 그리고 재소자 모두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어 복음의 문, 곧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 보내어 교도소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재소자들의 감격의 간증들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교도소 문서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후원자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기쁨의 역사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순덕 권사

세계에서 재소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이렇게 문서선교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재소자들이 변화프로젝트 책들을 읽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이 문서선교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추수할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10:2).

yon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브라질

브라질에서 한국 현대로템주식회사에서 만든 전철을 수입하다.

조국이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브라질까지 전철을 수출해서 조국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희 집 근처에 한국말로 쓴 대형 프랭카트가 걸린 전철 몇 대가 전철역 종점에 있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브라질은 디우마 여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맡고 있으나 역시 부정 부패로 목숨을 앓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순절계통의 교회들의 탈선, 비리, 기복신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중언, 몰몬교, 에스페라다, 미신, 점쟁이, 사교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리고 건강한 신앙을 모르고 가정은 이루어 자녀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세운 교회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2월 3일 “셀리아” 교사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희귀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살지만 동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한 생명이라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집을 개방하고 그 어린이들을 섬기며 식사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자기 집같이 들락날락 합니다. 3학년 밖에 공부를 안했으나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사명감을 감안하여 허락하므로 1년 정도를 잘 마치고 되었습니다. 이 셀리아 교사는 부모, 친척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애기일 때 남에게 맡겨 자라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서 배우며 3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하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원로이신 양승만 선교사님이 세운 임마누엘교회는 아들 양원모 선교사님이 20년 이상 목회하며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으로 목회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양부의 성도들이 거리는 멀지만, 지도자훈련, 종교개혁주간 특강 등 함께 행사를 통해 신앙생활 시작하지 얼마 안되는 초보적인 성도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23주년 교회 생일 축하

미신과 카톨릭 세력이 무척 강한 도시에 장로교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양부도시는 150여 개의 동네가 있고 26만명의 인구가 삽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 동네 곳곳에서 곳을 하는 복소리가 주일마다 있었으나 이제는 개신교들이 많아지고 무당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몰몬교가 기승을 부리고 여호와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아직도 한국의 불교같은 미신 카톨릭이 수많은 백성을 오도합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노시영 선교사
nohsyoung@hanmail.net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사훈련

꿈비에서 사역하는 흥경화 선교사를 초청하여 교사훈련을 하였습니다. 80-90% 결혼가정들입니다. 부모들은 복음을 모

선교사들이 세운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연합하며 교제함

양원모, 하은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임마누엘교회에 양부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게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사모와 중보기도 사역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나 예배, 찬양과 교육 등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비하여 중보기도사역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다. 중보기도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또 영적 리더의 능력 있는 승리의 목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역이다.

목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조는 중보기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모가 성령을 의지하여 결사적으로 기도의 뒷받침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지식, 재능 경험과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공적인 목회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되게 하리라'(10절)고 하셨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를 찾을 수 없어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삶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 하리라'(렘5:1).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을 하실 때에 중보기도자를 찾으시고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인간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2)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고,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중보기도 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독일 통일의 역사는 소수의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었다. 필자가 남편 목사님과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성화를 인도한 후에 시내 관광을 하게 되었다.

권순태 목사님과 양미란 사모께서는 "이곳에 있는 성 니콜라이(St. Nicholas)교회는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하면서 그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바로 그 교회에서 5-6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모여서 간절히 중보기도 한 것이 불씨가 되어 40년 동안의 공산당의 독재를 붕괴시켰고, 마침내 동독이 무너지며 1989년 10월9일 분열된 독일을 통일시킨 위대한 기적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교회에서 시작한 평화기도회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간절한 성도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4) 중보기도는 설교자에게 막강한 능력을 부여 주시기 때문이다.

(1) 3천명씩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중보기도의 능력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6)



이희숙 사모

중보기도의 정의

중보기도(도고)를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한다(딤후 2:1-2). Intercession은 Inter와 Cession이 합쳐진 말인데 Inter는 Between(사이)을 의미하고 Cession은 Go(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edere에서 파생한 말이다. 그러므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Going Between' 즉 양편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뜻한다.

중보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교회와 사회와 민족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영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감당하는 일이다.

2. 중보기도의 중요성

1)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시고 "이 백성은 목이 뻗었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목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조는 중보기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모가 성령을 의지하여 결사적으로 기도의 뒷받침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장'으로 제자들이 하나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중보기도 하였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중보기도이다.

'누가 정죄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3) 중보기도는 기적과 문제 해결의 응답을 가져온 열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기적으로 구출 받았다.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능력있는 설교를 위하여 배후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능력의 결과였다. 그 열매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행 2:38-41).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반드시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막강한 중보기도로 준비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그 도시에서 중보기도팀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중보기도는 설교자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함께 하게 만들어 설교자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삼하7:3)

출애굽 이후에 천막에서 거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을 보니 너무 감격하셨습니까.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막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누추한 성전에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한번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크고 좋고 천막이고 백향목 성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소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삼하7:4-8)

주목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즉각적으로 선지자와 상의하며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항상 사무엘과 갓 선지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나단 선지자가 항상 그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더 훌륭하게 더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도의 복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나눈 후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삼하7:8)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높여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는 정말 연합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한순간에 높이 올려주시고, 주권자로 삼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후하게 대접하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언젠가는 한순간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목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삼하7:9)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시어 주권케 만들어주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과거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존귀케 하셨다"는 뜻은 "높고 크고 위대하고 고상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위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면서 저희들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금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삼하7:10-11)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복은 다시는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하십니다. 10절 "심고"와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말씀은 교회를 사랑 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무" 즉 그리스도께로 옮겨 심기운 나무로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기 원하는 성도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한 영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11절 360년 동안 계속해서 대적이 침투해오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대적이 계속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시므로써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삼하7:11-13)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복은 자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 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오실 때까지 자손대대로 후손들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의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Daejeon, Roman Catholic, etc.

크리스마스 축하 광고

Christmas Gree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아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 | | | | | | |
|--|---|---|---|---|--|--|
|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714)521-4636</p> |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p> <p>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
|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 <p>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p> <p>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p> <p>Tel. (718)224-1993</p> |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p> <p>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 <p>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
|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중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 <p>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p> <p>21519 S. Menlo Ave, Torarncce CA 90502</p> <p>Tel.(310)749-0577</p> | <p>샤롯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
|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 <p>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
|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p> <p>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Tel.(213)384-7274 Fax.(213)384-8638</p> |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p> <p>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p> <p>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
|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 <p>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안상수</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 |